朝鮮日報
夕刊
三日(金)
本紙朝夕刊十二面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 株式會社 朝鮮日報社

武力行使로 獲得한 領土의 絶對不承認要請
『에디오피아』代表部의 覺書 聯盟事務總長에 提出

【쥬네브二日發同盟】 에디오피아代表는 二日 聯盟事務總長 아브놀氏에게 覺書를 提出하야 總會에서 左의 兩決議案을 採擇하기를 要請하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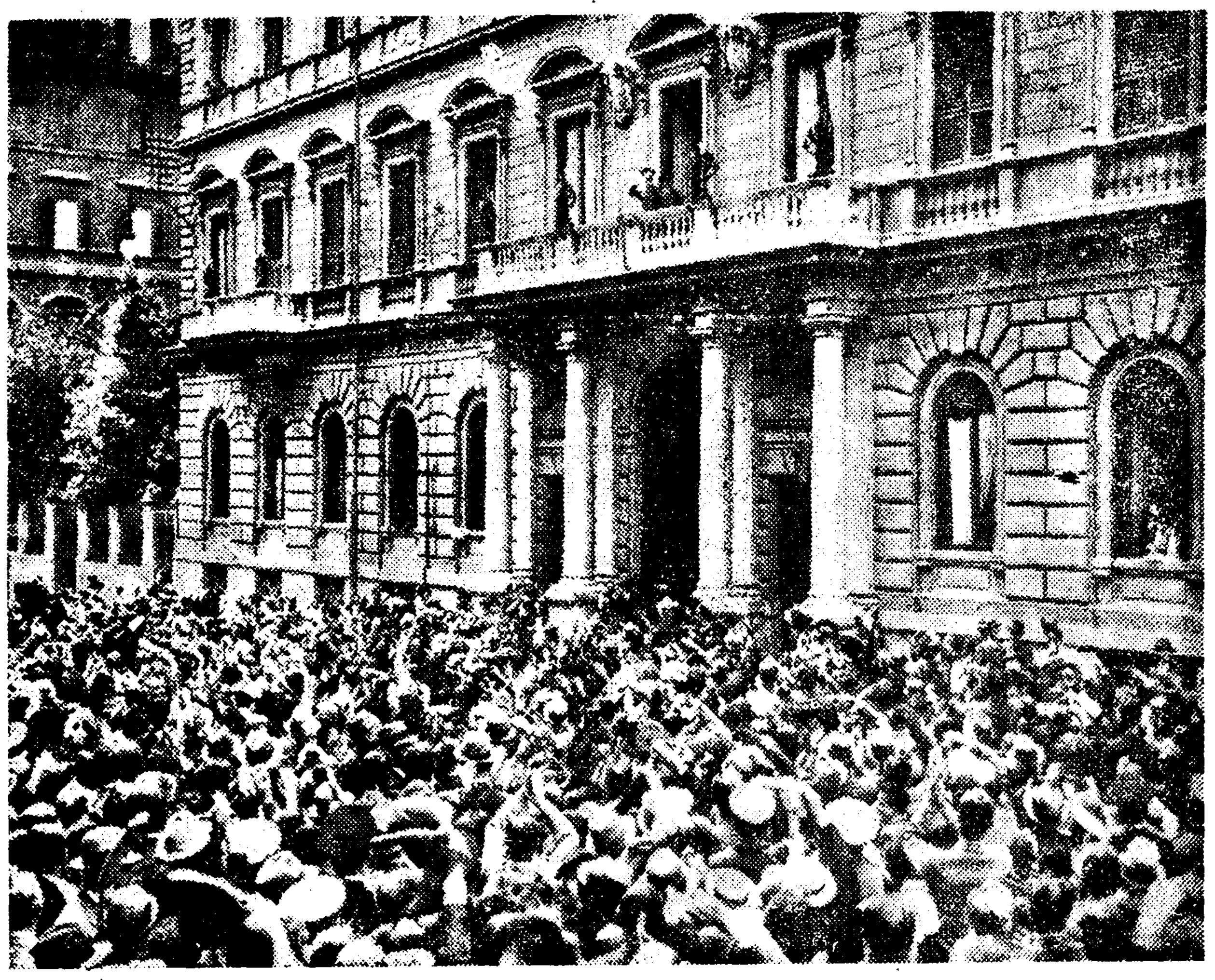
一、決議案第一＝聯盟總會는 規約第十條及 第十六條를 堅持하고 또 武力行使에 依하야 獲得된 領土의 倂合이 絶對로 承認되지안키를 宣言함

一、決議案第二＝聯盟總會는 에디오피아政府의領土保全及政治的獨立을 擁護하기爲하야 聯盟規約에 明記된 財政的援助를 同國에 附與하기를 希望하고 聯盟理事會가 財政委員會에諮問을 決定할 條件下에 에디오피아政府가 起債를 許可한 總額一千萬磅의 借款에 保證을 與하도록 聯盟 各國政府에 勸奬할것

伊軍의征服한것은 에國의 一部일뿐
駐에英國公使의歸任談

【랑스게트＝英國＝二日發同盟】 에디오피아駐在英國公使베－른氏는 二日汽船으로 랑스게트港到着直時 倫敦에向하엿는데 記者團에 左와如히 語하엿다

英國公使館이 伊太利軍에暴行壓迫을 受한事實은없다 余의不在中은 로버－트一等書記官이代理를勤務케되엿다 에디오피아現狀은 아마 아모도 모를것이다 伊太利軍이 占領한것은 에디오피아의 一部에不過하고 에디오피아全部를 伊太利가 征服하고 잇지못한것은 厳然한 事實이다 將來 에디오피아問題를 如何히結末지을가는 歐洲列國의 協議에依하야 決定될것이다


▼羅馬市民의 伊東阿遠征軍司令官바드리오元帥 歡迎大會

獨對英回答覺書
總統手許에草案廻附

【伯林二日發同盟】 獨逸政府는五月七日 英國政府로부터 質問覺書를 接受한以來 全然默殺하고 現在에及하엿는데 外務當局에서는 漸次回答草案을 脫稿하고 最近 히틀러總統手許에 提出한것이라고 解釋된다 히틀러總統이 草案에 [illegible] 英國政府에 [illegible] 豫定이다 回答內容은 [illegible] 英國其他 關係各國政府가 右回答에 滿足하고 [illegible] 英國政府 其他關係各國政府와 交涉의 基礎가될 [illegible] 滿足지안흘리라고 觀測되는데 七月二十日頃 부랏셀에서開催豫定의 第四次로칸느會議에 [illegible] 獨逸代表의參加를 要請하리라고 觀測된다

川越新駐中大使 信任狀捧呈式
【南京三日發同盟】 日中關係를打開하야 中國國交에 一新轉回를 實現을 負擔하고 來寧中인 新任駐中大使川越茂氏의信任狀捧呈式은 三日午前十一時半 國民政府大禮堂에서 盛大嚴肅히 擧行되엿다 當日午前十一時 川越大使는 國民政府特派의 參軍處典禮局科長 劉健群 外交部總務司交際科長林桐實兩氏의 先導로 國民政府에서 오는 儀裝 自動車에 若杉參事官 須磨 武藤 兩一等書記官 有野二等書記官 吉岡 荻原兩三等書記官 佐藤大使館附海軍武官 雨宮同陸軍武官等을 거나리고 國民政府大禮堂에 到着하야 休憩室에서 少憩한後 大禮堂에 入하야 張外交部長以下 文武官을 거나린 國民政府首席 林森氏에게 信任狀及 前大使의 解任狀을 捧呈한後 口上書를朗讀한바 이에對하야 林森首席으로부터 答辭가잇고 天皇陛下의 御健康을 奉祝하매 川越大使謝意를 表하바잇섯다 다음에 川越大使로부터 各大使館員 全部를 林森首席에게 紹介하매 林森首席亦是列席한 文武官을 紹介하고 이것으로 式은 거치엇시 終了되엿다 一同은 別室에서 샴펜盃를드러 兩國國交의 敦睦을 祝하고 繼續林森首席의 招宴에 臨하엿다 一時지나 大使官邸에 歸還하엿다 午後六時부터 外交部大樓에서열릴張外交部部長招待晩餐會에 出席할터이다

西總領事로부터 正式要求提出
茂益丸事件에關해
【靑島二日發同盟】 茂益丸에對한 靑島稅關監視船의 暴行事件에關하야 캠벨稅關長과 折衝中인 西總領事는 二日캠벨稅關長에對하야 日本側의 正式要求를 提出하엿다 右要求條件은 陸海外三[illegible]

制裁撤回 具體的處置爲한 委員會設置提議
顧中國代表、滿洲問題들어聯盟缺陷을論難
智利代表 脫退方針宣明 (聯盟總會)

【쥬네브二日發同盟】 十時半開會 議長바질랑氏 司會下에 制裁善後策에關한 一般討議를 續行하엿다 劈頭에 瑞西모타代表는 制裁撤回의 具體的措置를 講究하기爲하야 制裁調整委員會를 設置하기를 提案하고 左와如히 述하엿다

聯盟各國은 伊太利의 侵略行動을 阻止하기 爲하야 經濟斷交措置를 取하엿스나 不撤底를 免치 못하엿고 國際聯盟은 現在 普遍性을 欠한結果 制裁行動으로써 戰爭을阻止할 目的은 達成치 못하엿다 刻下國際情勢의 不安定이極한現狀에잇서서는 即時制裁를 撤回함은 至當치못한바 먼저制裁調整委員會를 設置할것이다

다음에 丁抹의뭉크代表는 同委員會設置에同意를 表明하고 다시 獨自의聯盟改組案을 提案하야 次와如히 述하엿다

一、非聯盟國의參加를 催保하기爲하야 理事會에잇서 其具體案의檢討를 行케할것

一、聯盟各國政府는 非聯盟各國政府와의 商議協約을 締結하고 紛爭이發生할境遇 相互通告協議하기로함

다음에 라트비아의라소가이테스代表도亦是 一九二〇年 波蘭軍이 리투아니아國內에侵入한當時의事情을披瀝하야 國際聯盟의無力을 痛擊하고 最後에 和蘭代表로부터 改組案에對하야 發言이잇슨時 正午一旦休憩, 午後에도 制裁撤回의一般討議를續行하고 智利代表리바세비큐야, 瑞典代表웨스트만, 愛蘭代表바레라, 뉴질란드代表왈, 墺太利代表게프롸, 中國代表顧維鈞, 匈牙利代表데베리스氏及 波斯代表세파모치氏는 交交이러나 制裁撤廢의 不得已한所以를 承認하는同時에 九月總會에서 聯盟機構에 再檢討를加할 必要가잇다는旨를 力說하엿다 但曉 智利代表리바세비큐야氏는 侵略不承認原則을 支持强硬意見을 表明하야 左와如히述하엿다

智利政府는 亞爾然丁政府와同樣으로 侵略의成果 不承認原則을 支持한다 萬若 聯盟의機能에對한 信賴가 回復되지안는限 智利政府는 聯盟을脫退할方針이다

又中國代表 顧維鈞大使는 滿洲國問題를드러左와如히述하엿다

中國政府는 中國이 侵略의犧牲이된 事實에鑑하야 集團的安全保障體制의 强化를 目的하는모든 方法에 參加하엿다 今回聯盟이 紛爭處理에 失敗한것은 要컨대 滿洲事件에서由來한 當然한歸結이다 原因은 聯盟規約의 不完全한데 잇지안코 規約의適用에 徹底를缺한結果이다 中國政府는 制裁撤去를受諾하나 聯盟의 重要原則은何等毀損되지안코도集團的安全保障體制理想을어데까지堅持하기를各國代表에게要請하다 午後의會議는 討議三時間後 午後六時散會하엿다 三日에다시續開할터이다 (寫眞은 顧維鈞氏)

抗日政策에邁進
中國의統一을害하는者는武力으로써膺懲
蔣뿌레인 트러스트의 一人인楊氏談

【漢口二日發同盟】 湖北省主席楊永泰氏는 昨夜當地中國新聞記者를招致하고 西南問題에對하야 左와如히말하엿다

抗日救國軍의抗日은 僞裝으로 實相은 反蔣運動이다 中國의統一을害하는者는 武力膺懲을加할것이다 그리고 宋哲元、韓復榘等의 反蔣策動에도 膺懲을加할것으로 共産軍은 最後에解決을지을것이다 國民政府의態度는 어데까지 抗日方針에는 變함이업다 內亂平定後에는 抗日로 轉하기로 決定하엿다

蔣介石氏의 부레인트러스트의 一人으로 또는 그의 手腕이라 고稱하는 楊主席이 右와如한談話를 公言한것은 各方面의 注意를 끌고잇다

航空國策 最後的檢討
遞信省議經由閣議提出

【東京電話同盟】 遞信省의 重要政策으로 賴母木遞相이 三日의閣議에 提出할 航空國策에關하야서는 압서遞陸海三省間에서 協議立案中이든바 最近漸次大綱을엇게되엿슴으로 賴母木遞相은 二日午後 省內大臣室에서 遞信省議를開하고 午前의 海運國策에 繼續하야 航空國策의 最後的檢討를 遂하엿다

右는 國際航空路의開拓과 航空工業의 助長統制의二點에 置重할 그實現을期할 根本方針을 定하고 이에基하야 左의航空國策의 槪要를 決定하야 三日閣議에 提出하기로되엿다

▲航空國策의槪要

一、計劃의目標 航空事業을 現在의 不振狀態에 放置함은 國運의 進展으로보든가國防의將來로보아 重大한支障을 免치못할것임으로 此를整備擴充하야 將來의 大飛躍에 備함

二、計劃의內容 曩者 航空事業調査委員會에서 決定한 第一次民間航空新規計畫을 中心으로時勢의 進運에伴하야 適當한修正을試하고 十二、十三、十四의 三個年으로期하야 立案할것으로 最重要한點은

甲、國際航空線路의 開設에對하여는 從來의方針을改正하야 一定한 經費를豫定치안코 交涉成立되는 即時實行에 着手할수잇는 經費를 槪算하야두엇다가 그用途에 使用함

乙、航空工業의 助長統制에對하여는 飛行機 發動機의試作에 將來는 相當히 多額의補助를 支給하고 安價로 優秀한 飛行機의 製作을 期하고 他方試驗設備를 擴張하야 製作指導器材의 規格統一을目的으로함

丙、그리고 民間에 對하여는 航空機의買入을 奬勵補助함

三、十二年度豫算案 (單位千圓)

國際航空路整備費	七、八二〇
國際航空路線開設費	二、七九〇
乘員養成費	一、一二〇
航空工業助成統制에要하는經費	六、九五〇
國內定期航空其他補助奬勵費	一、九五〇
事務費	一〇〇
合計	二〇、七三〇
既定年度額	三、九〇〇
以上總計	二四、六三〇

그리고 이 通信特別會計로부터 一、國內支線開設費 二、航空無線調查額을 一般會計에繰入할模樣이다

海運國策決定

【東京電話同盟】 三日의國策研究閣議에 遞信省으로부터 提出할 海運國策에 關聯하야 賴母木遞相은 二日午前八時半부터 同十一時까지 省內會議室에서 省議를 開하고 賴母木遞相 前田富安兩次官 小野管船局長以下 各局長官 房課長等이 出席하야 最後的檢討를 거듭한結果 海運國策의 根幹은 不定期船遠洋航海補助와 優秀船建造補助에 重點을 두고 이에 附隨한 諸施設의 經費를 合하야 明年度豫算約千五百萬圓을 要求하기로 正式決定하고 三日의 閣議에 遞相으로부터 提出하기로되엿다 그內譯은如左하다(單位千圓)

一、不定期船遠洋航海補助費	五、〇〇〇
二、優秀船建造補助費	三、〇〇〇
三、海運金融施設의改善擴張	三、〇〇〇
四、船員養成補助와 船舶試驗所의設置擴張	一、七〇〇

遞信側意思表示回避
郵便料値上問題

【東京電話同盟】 郵便料金引上에 依한 增收의 一般會計繰入에關하야 遞信內部에서는 從業員이動搖를 示하게되엿슴으로 一日午後 賴母木遞相은 前田、富安兩次官과 省內大臣室에서 이에關한 遞信省으로서의 根本態度를 決定하기爲하야 協議를 거듭한바잇섯는데 結局 아직 財務當局으로부터 正式交涉이 잇는것이아니오 따라서 이問題에關하야 事前에 積極的意思表示를 할때가 아니라는데 意見이 一致되엿다 그런데 遞信省으로서의 立場에서는 通信事業의公益性에 鑑하야 郵便料金은 原則으로 引上하고십지안흐나 一般增稅에 依하야 大衆의 負擔을 重加하게되면 한번 考慮해볼만하다 그러나 그境遇에도 今日의 文化國家에서는 通信事業은 前述한 公益性뿐아니라 此를 國防上으로 보더라도 極히 緊要하야 오히려 狹義國防의 見地에서 그妥當性이 認定되는터이므로 이것의 增收는 事業自體의 擴充完備와 지금까지 極度로 劣惡待遇를 甘受해온 二十萬從業員의 待遇改善에 充當하는것이當然하다는意見이有力하다

秘露入國制限
緩和交涉訓電

【東京電話同盟】 六月二十六日附 秘露大統領令은 外國人의個人企業及營業을 制限할것으로 日本移民에 重大影響이잇는것이라 하야 政府는 重要視하여왓는데 二日 村上秘露公使로부터 外務省에 [illegible] 當局의 一致意見下에 [illegible] 案을 解釋되는데 캄벨稅關長은 이미個人的으로 深甚遺憾의뜻을 表함으로 稅關當局은 此를 容認하리라고 期待된다

重要國策을審議할 國策閣議開會！
遞相이 먼저電力、航空、海運國策三項目說明
庶政一新具體化目標

【東京電話同盟】 庶政一新을 標榜하는 現內閣이 具體的革新政策을 審議하기爲한 第一回重要國策閣議는 三日午前十時二十分 首相官邸에서 열린 廣田首相以下 全閣僚及、將來重要政策檢討審議 其他의必要를爲하야 藤沼次田、吉田의 所謂內閣三長官도 出席하야 먼저 重要國策定議審議方針에 關하야 廣田首相은 現內閣의 施政方針에 關하여는 일즉 述한바와 如함으로 諸君도 그後 具體案에 對하야 研究하고 잇는줄로 思한다 故로 이案에對하야 順次御說明하기바란다 大體로 說明을드른後 다시研究하야閣議에서 意見을 吐露하야서 時局에 適切한것을 어더實行에옴기려한다 그政策을 實行함에는 官制上改正을 行할必要가 잇슬 境遇에는 行政機構 其他의 改革도 實行하기를바란다 먼저 本日說明할수잇는것부터 說明하기를바란다는旨를 述하고 各省國策具體案說明을促하엿다 이에應하야 賴母木遞相先陣을바라 遞信省所管에關하는國策即

一、電力國策
二、航空國策
三、海運國策

等三項目에對하야 詳細說明을行하고 더욱今後國策審議方針에關하야 各閣僚로부터 忌憚업시意見交換을行한 結果 特히注意할

一、重要國策以外에 各省에서必要타고認定하는 新規要求에는從來와如히 大藏省과 各省에서 折衝한다는 方針에는 何等變更이업다

一、今次國策閣議에서는 眞正으로 重要國策에相當한 國策을 決定하여 努力한다

로 協議하고 午後零時十分 散會 次回는來七日 午前十時부터 開會 林法相으로부터 司法當局의 重要政策에關하야 說明을 行할터인데 境遇에잇서서는 今後에는 午後에도 繼續行하리라한다

東亞勸業態度가突變
鮮滿拓殖創立延期

【東京電話同盟】 鮮滿拓殖會社의 創立前提條件인 東亞勸業公司의 買收에關해서는 先般來朝鮮總督府外事課와 會社側間에 折衝中이던바 압서 朝鮮總督府側提案인 會社資産評價額五百萬圓으로 買收할터이엇는데 最近에 會社側이 八百萬圓說을固執하게되엇기때문에 交涉은 一頓挫를招來하엿다 따라서 會社側代表는 一日京城을 撤歸하야 再次交涉에 나설 模樣이다 따라서 七月中旬開催를 豫定이던 鮮滿拓殖會社創立總會는 八月下旬이될 模樣이다

人事·集會
▲治田郡市氏(前昌德宮警察署長)全州警察署長으로轉任人事次來社
▲二瀨一三氏(昌德宮警察署長)新任人事次來社
▲李天應氏(利川自動車株式會社社長)就任人事次三日來社
▲李源藝氏(同專務取締役)同上
▲松岡脩二氏(鍾路警察署長)新任人事次三日來社

人面錄
◇
二十四時間以內에 一千臺의飛行機가 發着할수잇는 大飛行場을 建設할 計劃。
◇
第一主義의 米國의 하는일이냐、자랑人거리라면 모르되、實戰을 爲한것이라면 놀라운消息。
◇
張學良이 西北邊境四省의 獨立을 計劃한다고。
◇
但、이것은 現場에서 멀니東으로 떠러저잇는 天津方面의 消息이니 放送의 根源을 알수잇나
◇
七月三日、東京에 非常時廣田內閣 庶政一新國策決定閣議가 열니다。
◇
뚜경을 열어서 무어시 나올지는 두고 보아야 알일이나 內閣의 生門方도 이하루에 달닌듯。

英、主力艦二隻 建造에着手
米紙의倫敦特電所報

【紐育二日發同盟】 헤랄드트리분紙倫敦特電에依하면 英國政府는 主力艦二隻建造에 着手하기로되며 近近요인及 마세이兩造船會社에 各一隻式의註文을 發하리라고 觀測되다 同建造費는 一隻六百萬磅으로 槪算되여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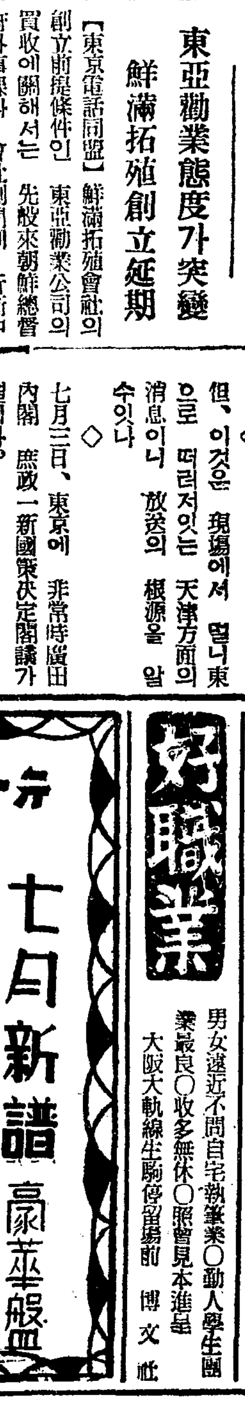
米飛行根據地 七個所도設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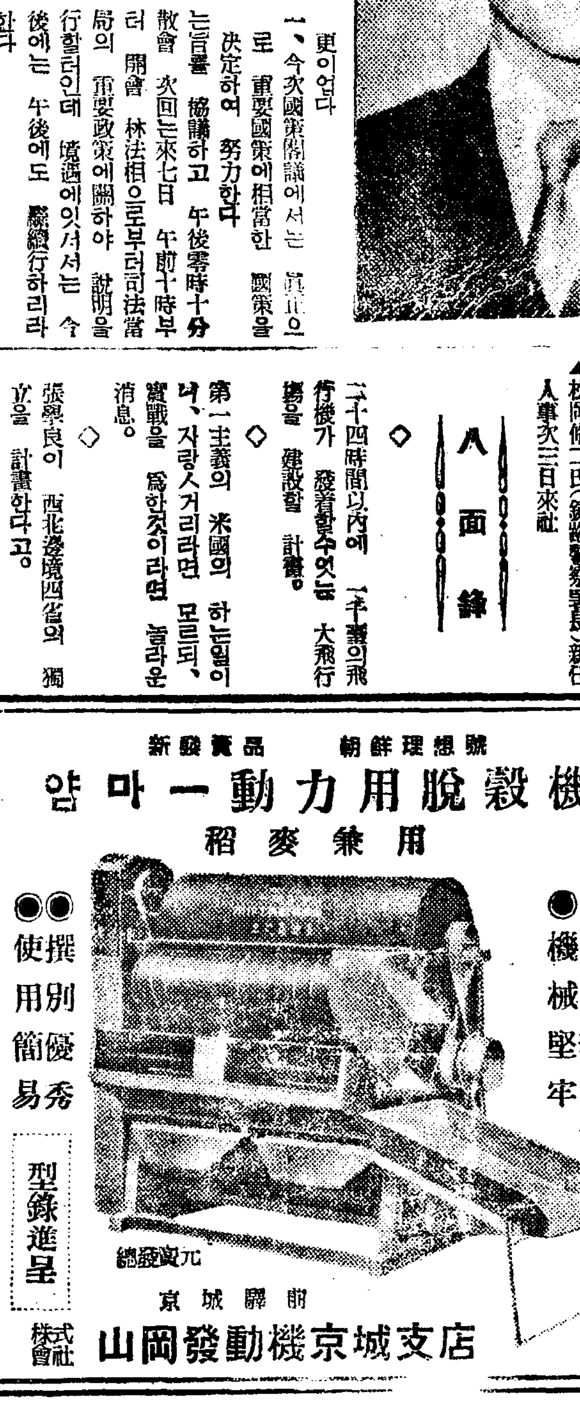
【華盛頓二日發同盟】 米國陸軍省은 太平洋防備强化에 腐心하고잇는데 二日 알라스카의 페아방크스附近에 數個所의陸軍飛行根據地를 敷設하기로 決定하고 그準備次로 專門委員을 任命하엿다 右에關하야 陸軍當局은二日 左와如히 말하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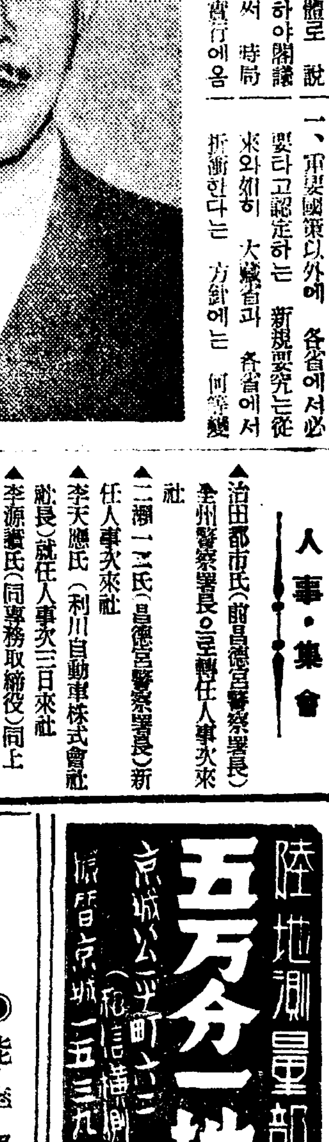
今日任命된 專門委員會는 米國陸軍當局이 當面한國防問題解決을爲한 第一着手이다 이計畫은 昨年議會의協贊을거친 윌콕스法을 實行하는것으로 右根據地는 二十四日間以內에 約一千臺의飛行機가 離、着陸할수잇는大規模의것이다 米國陸軍에서는 더욱 今夏米國本土에 同樣의根據地七個所를 設定할터인데 此等計畫의實現은 財政的見地에서 數年을要하리라고 觀測되다

局友會館 十七日開館式

目下內部造作을 急히하고잇는 鐵道局局友會館(總工費二十萬圓)은 近近完成됨으로 마침내 來十七日 午後三時부터 各關係者列席下에 開館式을擧行하고 十八日부터 開場하기로되엿다







夏宵、情痴現場에서 四名亂刺의 慘劇

全部生命危篤

—貧困때문에變心한愛妻의亂行에憤慨—

本夫는犯行後警察에自首

【平壤支局電話】"아내를믿을수는 업다 나 잇다하여도 맛지못할것은 녀자이다"……하는말도 잇거니와 원앙의단꿈도 해를거듭하는 구차한살림으로 여지업시 깨여지라고한지옹 사랑스러운 안해를 고향에남겨두고 버리길을 떠나 매일거리 고향에잇는 애처에게 돈푸리한돈을 보내다가 우연히 도라와보니 맛지못할건 녀자다 경부와 모개장속에서 주태백을 질투와일념에 타는마음을 억제치못하야 칼날을 중의의방의자를 향하야 날르고 말엇다 평남강서군 동진면룡정리(平南江西郡 東津面 龍井里)에사는 김준석(金俊奭)(三四)은 오변전 그동리에 사는 강명실(康明實)(二六)과 결혼한후 남부럽지 안흔 정다운 살림을하고잇섯스나 항상경제에 고롱을바더 수일전에 전과김은 강원도(江原道)방면으로 버리를나가 돈푼이 버는대로 집에보내고잇섯는데 이일새벽 우연히 집에도라와보니 밋고미덧든 사랑하는 안해가정부와 모기장속에서 참아보지못할 추태를 연출하고잇섯슴으로 그순간 김은 질투와 원망과절망등 모든감정이 일시에 폭발하야 부억에잇든 식도로 강을 란자하야 중상을 입힌후 계속하야 천납 강응호(康應浩)(三一)와 그의처 문칠성(文七星)(二一) 도한 장모 독고남혼(獨孤男渾)(五二)등을 닥치는대로 찔러 모다 중상을 입혓스며 이 소동중에 간부는 어대론지 도망하여버렷는데 가해자 김은그날 오전여덟시에 흉기를 손에든채로 주재소에 자수하엿다고 한다

西大門署留置場에 赤痢患者가 發生

患者隔離大消毒施行

상십일오전에 동관할 서교정(西橋町)강도가 아직 잡히지안허 극도로초조한가운데 입의갈피를 잡지못하고잇는 서대문서에 이번에는 류치장가운데서 전염병환자가발생하야 일대소동을이르켯다 삼일오전열시반쯤에 사오일전부터 절도혐의로 류치중이든 김덕준(金德俊)(三七)이가 수일전부터 배를알키시작하야 매일사오차나 설사를함으로 오날아침에진찰한결과 『적리』로판명되여 때마춤마흔다섯명이나 류치중인서대문서에서는 대경실색하야 경성부위생과에 통지하야 환자를 순화병원(順化病院)에격리시킨후 류치장과 부근일대를 대소독을하엿다한다

"毒空木實"에中毒 一名死亡二名重態

釜山草梁町의慘事

【釜山電話同盟】 이일오후 다섯시쯤되여 부산부초량정(釜山府草梁町)칠백구십삼번지 박선문(朴善文)의딸 팔순(八順)(七)성호(性浩)(十一)칠련(七連)(九)임련(壬連)(五)이는 근처아해들여덟명과함께 그동리 부산중학교(釜山中學校)뒤에 들어가 식물원에 심어잇는 독공목(毒空木)이란지극히 독한 나무열매를 멋모르고먹고 맹렬한 고통을 이르키고잇섯는데 그중에도 전긔네명은 맹열한 두통을 이르키며 중태에빠젓슴으로 근처아세아병원에 담어다가 응급치료를하엿스나 맨끗의임련이는 밤아홉시에 드듸여사망하고 남어지 세명도 생명이 위독하다고한다

(新町遊廓)에자살소동두건이잇다 ▼신정(新町)상반루(常盤樓)에 상십일 낫부터 등루(登樓)하고 잇든 삼포리춘(三浦利春)(三五)과 그집창기 고교(高橋)도메고(三二)는 삼십일새벽에 다량의『아다린』과 쥐잡는약을먹고자살하려는 것을 그집안사람들이 발견하고 곳 신정병원(新町病院)에 입원식혀 응급치료한결과 생명에는 관계업다고 ▲이일저녁 신정성월루(星月樓)에 등루한 일본내지인 손님이 상업아츰 녀자가 아레층

在滿朝鮮人就籍者 一年約一萬人

無籍者아즉도四十萬

총독부에서는 만주에잇는 조선사람의 민적업는자의 취적장려에 여러가지수단을 강구하고잇는데 만주에 잇는 조선인민회(民會)구십이개소의 조사를 보면 소화십년도중에 무적자의취적상황은 전가족취적 이천사백이십건 일부가족취적팔백오십륙건으로 합계 삼천이백칠십륙건인데 일건에 대하야 세사람식 계산하드라도 구천팔백이십칠인이 작년도중 새로 호적에 드러간 세음이다 그래서 만주에 잇는 전조선인을백만으로본다하드라도 아직 그사할사십만명은 무적자로 헤아리게된다

旭川에轉落 車體大破

元町에自動車事故

삼일오전령시쯤하야 시내영락정(永樂町)미쯔와(圖)택시 김창수(金昌洙)(二三)가 경구천백사십팔호차를 몰고 원정(元町)오정목전차종점(終點)까지갓다가 도라올녀다가 까구루마를『빼』하려하든차에 잘못되여 높이약십미돌ㅣ되는욱천(旭川)오른편강가에 떠러저 차체는대파하엿스나 다행히 김창수는 곳뛰여나리여별반 피해는업다고한다

總督府在外派遣員會議

경무국재외파견원회의는 삼일오전아홉시부터 총독부제이회의실에서 단하(丹下)보안과장통재아래 복도봉천(福島奉天) 일삼상해(一杉上海) 복부신경(服部新京) 전변(田邊)하르빈 소야북평(小野北平) 좌야동경(佐野東京)등각재외파견원 기타 관계관의 출석으로 개최하엿다 최근의 국제정세에 비추아 근간에 활발한 외사경찰망의구성련락 떠욱이 조선내외와의 련락사무 조선인의 만주진출에 따른 여러사무의 상의를 중심으로 협의를 하엿는데 회의는 오늘하루에 끗낼터이라한다

横領高飛犯逮捕

삼일아침 아홉시반쯤에 황해도연백군(黃海道延白郡)경찰서의석전(石田)부장이 시내 서대문서원의 응원을어더 시내 현저정(峴底町)의창정미소(倉山精米所)안에서 일보고잇든 리병한(李炳漢)(二七)이라는 자를체포하여가지고 도라갓는데 전긔리는연백에서 모부호의 돈칠원가량을횡령하고 경성으로 도망하엿든것이라고한다

訓練大將이 이끌!

詐欺事件이綻露되어留置場에

삼일아츰 태평통(太平通)파출소압흘지나가는 거동이수상한 사나히두사람을 본정서원이 취조한결과 주소부정의 서명두(徐炳斗)(三九)와 김문경(金文敬)(三七)으로 주소미상의 유정렬(柳貞烈)을 취직식혀준다고하고 오곳 본서에 인치하야 취조중이라는데 서명두는 취조 경관에게 나는 구한국(舊韓國)시대훈련대장(訓練大將)을 지낸사람인데 유치장생활이라니 이게무슨소리야 하면서 호령한바탕을하엿다한다

强盜殺人犯에 死刑과重刑

강도살인、방화사건피고 함남장진군상남면천의수리(長津郡上南面天宜水里)김익조(金益祚)(三二) 김경연(金京演)(二七)등에 관한공소심언도공판은 삼일오전열시 경성복심법원에서 지전(池田)재판장우심 의전(依田)검사 관여미례 열리여 재판장으로부터 김익조에겐 사형 김경연에겐 징역 십오년의 판결언도가 잇섯는데 사건내용은 그들은공모하고 작년십일월십오일 전긔상남면 천수리화피산(天水里樺皮山)속에사는 박홍순(朴洪淳)(五二)을 돌맹이와 낫으로써 죽이고 돈구십사원삼십이전을강탈한다음 범행을감추기 위하야 그집에 불을질는것으로 함흥지방법원에서 김익조는사형 김경연은 이십년 징역판결을밧고 불복공소해온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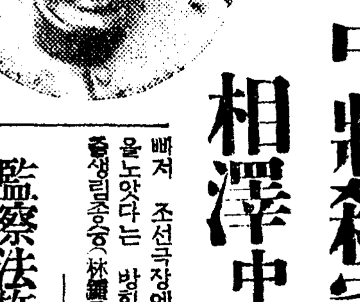
架橋問題坐礁

【平壤支局電話】 평양근교선교리(船橋里)방면과 시내를련락하는 유일한 대동교(大同橋)는 근교발전을따라 해마다그협착을늣기게되고 지금에잇서서는 전조선에서 제일위의교통량(交通量)을 가지고잇스며 따라서 제이인도교(第二人道橋)의가설은 평양부민의 숙원이엿고 부민의큰 요망이엿다 부당국에서는 이십만부민의 요망에응코저 드듸여 제이인도교가설을계획하고 명년도예산에 총공비삼백만원을계상하야 반액은부와부민이 담당하고 남어지반액일백오십만원은 국고보조를 신청하엿든바수일전도지사회의에 참석차로 상경하엿든 상내평남지사(上內平南知事)의 귀래담에의하야 총독부당국에서는 이보조신청을 전여 고려치안는다는 사실이판명되자 부민의 락망은도에달하엿스며 부회(府會)와 상공회의소(商工會議所)에서는 사일가각 긴급협의회를개최하고 대책을강구하기로 되엿스며 한편시민측에서는 시민대회(市民大會)를개최하고 위원을뽑아 총독부당국에 진정하야 귀어히목적을 관철하기에노력할터이라한다

『살무사』를손에 걸고돈을强請

절도에도 여러가지 방법이잇다 심지어 살무사뱀을 흉기대신으로 리용한 사나히가 잇다 시내 아현정(阿峴町)이십사번지의팔호 김복수(金福壽)(二三)는 이일오후여섯시쯤되여 욱정(旭町)환경시장(丸京市場)에서 살무사 장사의 살무사한마리를빼아서가지고 욱정일번지의 일백구십구호 야채 장사하는 중국사람 류봉지(劉鳳枝)의집에가서 살무사를 손목에걸고 돈을강청하다가 그만[illegible] 지게되엿다한다

永田中將殺害한 相澤中佐死刑執行



【東京至急電話同盟】 칠월삼일정오륙군성발표=지난륙월삼십일사형판결확정을본 원보병중좌 상택삼랑(相澤三郎)은 금삼일그형을 집행하얏다

朝鮮劇場放火犯公判

來十日로決定

가정불화로말미암아 자포자긔에 빠저 조선극장에구경갓다가 불을노앗다는 방화사건피고 전주출생림종승(林鍾承)(二〇)에 관한 제일회공판은 오는십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이진원(伊集院)재판장 주심하에 열리기로 되엿다

監察法施行前期하야 思想檢事會議開催

思想運動取締策도協議

총독부법무국에서는 오는구월에 전조선사상검사를 모아 사상검찰사무에관한 협의를 할터인데 이회동(會同)에서는 사상운동취체책과 십일월일일부터 실시하는 사상범보호감찰법의 시행에 관한 법무경찰당국자의 협력문제등에관한 토의를 할터이라한다 이미 사법성에서는 지난 이십구일부터 전국사상검사를모아 회의중인데 조선에서는 경성지방법원의 향천(香川)검사와 청진(淸津)지방법원의 송본(松本)검사가 출석하엿스므로 량검사의 귀임을 기다려 법무국에서는 금후의 사상운동 취체책과 사상전향을 시키기위한 보호감찰법의 실시방법등을 세워오는 오월의 사상검사회의에제출하야 협의할터이라한다

空中撮影制限

鐵橋、建物、海岸線等地其他禁止事項

警務局、暫定的取締方策嚴達

총독부에서는 군부와협의하야 공중사진촬영취체에관한 규측을 제정하고저 방금 경무국에서협의중인데 이규측이 제정실시되기까지의 잠정적취체방책으로 각도와 헌병대에 다음과가튼 요지의 통달을 발하엿다한다

一、공중에서 사진을 촬영할경우에는 전부경무국의 검열을 마터야한다

一、철도의 교량(橋梁)기타철교 특수한 건물등은 촬영을금지한다

一、특수지방의 지형(地形)해안선의 련속(連續)등은 촬영을 금지한다

一、기타 방공(防空)시설등 특히 보호가 필요한것은 촬영을 금지한다

이와가티 공중사진촬영은 매우 제한하는데 이것을 불원성문(成文)화하야 실시할터이라는데 당분간은 이것을 공중사진촬영관계자에게 엄달하야 취체를 려행할터이라한다

故國樂壇에보내는 喜消息!

歐米로音樂巡禮中인 玄氏에博士學位

米國市加古音樂學校授與

滯米中"朝鮮雅樂"의講演

조선악단의중견이오 시내 연희전문학교음악교수인 현제명(玄濟明)씨는 지난봄에 동교로부터 일년간 수유를 어더가지고 세계음악순례의 길을떠나 방금미주각지에서 음악교육의각종시설을 시찰하고잇는바 이번에 씨로부터 고국악단에 보내는 반가운 소식하나가 날러들어왓다 즉 씨는 칠년전에 "시카고" "컨"음악학교학사원을 마치고 귀국하는즉시 연전음악부를 담임하야 봉직하는중 틈틈히 자연발성법(自然發聲法)에대한 연구를 끈끈히하야 그연구론문『자연발성법의원리와 그결과』라는것을작년중에 전긔음악학교에 제출하여두엇든것이 이번씨가 체미하는기회에 동교교수회에서 통과되어 지난륙월오일에 영예의 음악박사의 학위를 바덧다는것이다 씨가 분망한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이귀중한 연구를한데에는 연전교장원더우드(元漢慶)씨의숨은원조와 발성학계의 거두이녹스타인박사의 친절한 지도가 큰힘이되엇다는데 조선사람으로서 이와가티 외국학부에 긔념할긔록을 남긴것은 씨와 더부러 우리악단이 한매지게 기꺼워할일인것은 물론이오 더욱이 이번에 씨는 미국의 유명한『로터히ㅣ버』음악연구재단으로부터 이방면에 연구를 장려하기위한 장학금(獎學金)을 바덧슴으로 불원하야 씨가귀국하는날에는 조흔성과가 매저질줄로 기대된다 그리고 씨는아프로 그곳악단인의주선과 각지 음악단체로부터 초청을바더 조선아악(朝鮮雅樂)에 대한강연회를 개최하기로되엇다한다

(사진은 음악사현제명씨)

변센쓰劇一幕!

벙어리가假刑事行勢

現金强奪햇다가被逮

【新義州】 의주군향교동(義州郡鄕校洞)에 거주하는 벙어리정윤묵(鄭允默)(二三)은 지난 삼십일신의주록정(綠町)무내(武內)제재소 부근에서 안동현으로 부터 신의주로 건너오는 만주인 한명을 붓잡고 형사(刑事)행세를하야 신체를 수사한후 현금 이원팔십오전을 강탈하야 가지고 도주하엿든바 지난일일 신의주서원에게 체포되엿다는바 이[illegible]형사인것을 자백하엿다

天氣予報

概況 低氣壓은 國境中部와東北地方의 西岸에잇스며 高氣壓은 小笠原島附近의 海上에 퍼저고잇다 滿洲朝鮮은 北東岸에는小雨가잇다 日本內地와 九州西部、東京附近、東北地方以北에는 降雨가잇스며 其他地方에는흐리다 中國揚子江의 上流에잇는 新低氣壓이 進出하여 오기때문에 日氣는 점점흐리고잇스며 조흔지면는 中部以南에는 小雨가잇슬런지 모르겟다

豫報 오늘밤京城地方은 대체로개이며 明日도개인다 京畿道全般은 오늘밤 점점흐리다가 엇저면 小雨가잇고 明日도흐렷다가 小雨가잇다

昨日最高 二三二度
最低 一五度六
今朝最低 一六度四
今日正午 二三度

平壤水王里 電話一〇六九番 水王産婦人科 醫學士 李麟杰

運動競技

올림픽招致에 伊國進出

英芬日伊四國對峙

【伯林二日發同盟】 第十二回올림픽大會東京招致에 對하야는『헤르싱키』와『런던』이 對立하야 東京은 極히 苦戰에빠저잇는이때에 또다시 伊太利가 에디오피아 征服의 餘威를 올림픽大會招致戰에 進出하고잇는것이 判明되여 日本의 樂觀을許치안는다 羅馬는 일즉이 建國二千六百年記念의光榮을 一層意義잇게하기위한日本의 熱意에 感動하야 뭇솔리니首相自身이 杉村大使와 東京招致를 誓約한바 잇슴에도 不拘하고 남모르게 今回올림픽大會招致國 獨逸올림픽組織委員會議長 레왈드 博士에게 羅馬가 立候補한다는뜻을 通達하야 日本에게 준즉賀을 破棄한것이 되엿다 레왈드博士의 發表로 明瞭하게 實을確認하고 다음과가티 發表하엿다

一九四〇年 第十二回 올림픽大會 招致 希望 候補地는 벌서부터 東京、헤르싱키의 兩地가잇섯고 最近에 이르러『런던』이 立候補한뒤를니어 한번招致申出을 撤回하엿든 羅馬가 再次招致希望을申出하엿다 이리하야來二十九日에 開催할 國際올림픽委員會에서의 次期올림픽大會開催地決定은 意外의 波瀾을 이르킬것으로 豫想된다

老童陸上競技大會 來十一日로延期

高麗陸上競技協會主催의 第三回老童陸上競技大會는 明四日午後二時부터 龍山鐵道運動場에서擧行할豫定이든바 主催側의 不得已한事情으로 來十一日(土曜)午後二時부터 龍山鐵道運動場에서 開催하기로 延期되엿다한다

平壤庭球團事業案

【平壤】平壤庭球團에서는 本社平壤支局後援下에서 다음과가튼 事業을 順次로 進行하기로 三十日夜總會席上에서 決議햇다

一、七月三日午後四時부터 崇專『코-트』에서 崇專庭球團과對抗競技開催
二、七月四日午後二時부터 紅白戰開催
三、七月五日兼二浦에遠征
四、八月八、九兩日間第一回西鮮郡部對抗庭球大會開催
五、九月下旬에全平壤中等學校庭球聯盟戰開催

宣川遠征의 延專庭球快勝

【宣川】宣川庭球研究會에서는延禧專門學校 庭球團을마지하야 지난一日 午後三時부터 信聖學校『코-트』에서 對戰한結果 第一『라운드』에서는 全宣川軍絕對優勢를 보혓스나 延專大將組인尹錫元 權福仁組가 最後까지 孤軍奮鬪하야 大激戰을 演出하다가 全宣川軍憤敗하고 마럿는데 이날對戰의 戰績은다음과갓다

【延專】勝 【全宣川】

◇第一라운드
×金光燮 朴正學 2—4 朴正福 朴貞賢○
×鄭允弼 崔麟鎬 2—4 魯正楷 金泳燁○
○尹錫元 權福仁 4—2 金啓善 吉樂永×
×李蕣洙 韓麟相 1—4 康敬行 崔鎔益○
×高昌烈 金淵洙 3—4 金春基 文春三○

◇第二라운드
○尹錫元 權福仁 4—1 朴正福 朴貞賢×
○尹錫元 權福仁 4—0 魯正楷 金泳燁×
○尹錫元 權福仁 4—1 康敬行 崔鎔益×
○尹錫元 權福仁 4—0 金春基 文春三×

全朝鮮女子올림픽

朝新主催의 第十四回全朝鮮女子올림픽大會는 今秋十月三、四兩日間 京城運動場에서 擧行할터인데 全般競技種別은 陸上競技를비롯하야 籠球、排球、卓球、水上、庭球等의 六種目이라한다

崇專庭球部 湖南遠征日程

【平壤】平壤崇實專門學校庭球團에서는 湖南地方遠征計畫을세우고 方今合宿練習을 하고잇는터인데 遠征軍의陣容과 各地競技日割은 다음과가트며 各地方朝鮮日報社支局의 後援을밧기로되엿다

◇遠征軍陣容 ▲監督 金浩植教授 ▲코-취 吳信健 ▲매니저 金應瑬 ▲主將 金化德 ▲選手 金敬江 郭聖煥 崔應祥 崔在甲 金熙哲 金化德 羅炳基 朴華守 申明善 金大吉

◇遠征地及試合日割
出發七月十日午後十一時十五分
▲開城 七月十一日
▲全州 同 十三日
▲群山 同 十四日
▲光州 同 十六日
▲木浦 同 十七日

朝報案內

社員 外務社員多數招聘。二十歲以上三十五歲 外交經驗者至急來談事(但地方代理店設置) 京城府西大門町一丁目六一 京城燐寸社

看護 婦見習至急採用十八歲以上普校卒業程度 希望者來談要 往十里町七六 十里醫院

電話 高價買入月賦販賣及電話擔保低利貸付親切取扱 鍾路一ノ元 電光四一一 榮商會

急讓 風光明眉閑靜無比處家屋整理上急讓 鍾路一ノ三九 電光四一一 榮商會

生綃보담十倍건고 純明綢網紗蚊帳 長六尺廣六尺 4人用特價 ¥5.00 使用價値百퍼-센트 輕快美麗

青布蚊帳

號	長	廣	價
2號	六尺	三尺	一、二〇
2號	六尺	四尺五寸	一、四〇
3號	六尺	六尺	一、七〇
4號	九尺	六尺	二、三〇

特品網紗

號	長	廣	價
2號	六尺	三尺	一、六〇
3號	六尺	四尺五寸	一、八〇
4號	六尺	六尺	二、二〇
5號	七尺	六尺	二、四〇
6號	九尺	六尺	二、九〇

生綃

號	長	廣	價
3號	六尺	三尺	三、七〇
4號	六尺	四尺五寸	四、三〇
5號	七尺	六尺	五、〇〇
6號	九尺	六尺	六、〇〇

特細密網紗

號	長	廣	價
2號	六尺	三尺	一、六〇
3號	六尺	四尺五寸	二、〇〇
4號	六尺	六尺	二、五〇
5號	七尺	六尺	二、八〇
6號	九尺	六尺	三、二〇

銀造紗

號	長	廣	價
3號	七尺	五尺	五、一〇
4號	七尺	七尺	六、三〇
5號	八尺五寸	七尺	七、〇〇
6號	十尺	六尺	八、〇〇

號	長	廣	用	價
2號	六尺	三尺	(二人用)	三、八〇
3號	六尺	四尺五寸	〃(三人用)	四、三〇
6號	九尺	六尺	〃(六人用)	七、〇〇

元光商店 京城府公平町九六 振替京一九九二一

不老長壽 強精回春 更少幸藥 百補丸 京城堅志町 平和堂 一劑十円

菜種商 大割引 種子는本場産이第一 芝罘農場出荷部 安東縣大和橋通

金銀 地方注文代金引換要先金 金銀賣買會社 京城南大門通一ノ九五 電話本(2)一三八〇番 振替京城一三四八〇番

百圓謝禮 昭和十一年七月一日京江陸運도락구가揚平郡葛山面鳳城里(보아리랑고개)에서 現金六百圓을紛失하엿는바 이것을어더서 揚平警察署에提出하시는분에게 現金百圓을 드리겟습니다 昭和十一年七月三日 京畿揚平郡邑內 京江陸運株式會社揚平營業所白

若草映畫劇場 電話本五二五四番 高級洋畫 午前十一時開場晝夜三回 興行入替無大五〇學三〇 P·C·L映畫と 六月三十日晝間부터三日間大公開 松竹蒲田映畫當當히上映 파데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名作篇 도도 작그、솔-우-르氏監督 알벨!프레잔氏 루네·산시-르嬢主演 笑活氣잇는巴里어프레잔에 노래! 哀愁의浪漫喜劇篇 松竹蒲田超特作映畫 野村浩將氏監督 現代劇 學生と與太 磯野秋雄氏 三井秀男氏 阿部正三氏 熱演 明朗한爆笑에連發가상에저저잇는 得意에캉그그야말로蒲田三人名物 엉터리에가지笑?淚?世界를明朗하게描寫한것이다 와나社超特作品發聲映畫 알·사젠드氏監督 戰爭劇弱者大成功 게네스·하!관氏 메리·만가리·스마嬢主演 第一劇場 鍾路五丁目의 여러분의 電光二六六番

七月三日ヨリ七日迄五日間封切 ▲オペラハット コロムビア社 ゲーリー·クーパー主演 ▲兄いもうと P·C·L 竹久千惠子·丸山定夫主演 ▲お嬢様お耳拜借 パ社 ゲーリー·イラグントン主演

빅타ー週間特別新譜
新民謠 아랫마을彈實이 李圭南
流行歌 이즈시면몰라요 金福姬
流行歌 無情의꿈 金福姬
新民謠 二八靑春 李圭南
빅타ー레코드

胃腸榮養

胃腸病 慢性衰弱病 結核症

活性ヘーフェ病原療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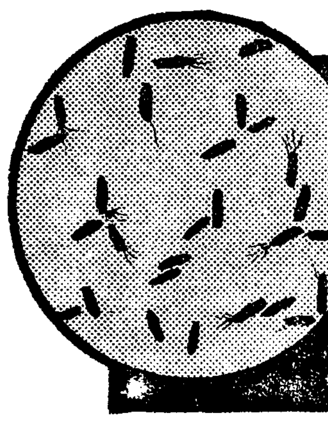
わかもと가――强力한消化作用을 併有한榮養原으로써 醫家가 各系榮養障碍에處方하야 著効를보게되는實例는、一一히枚擧할수업지만、胃腸疾患――急性은勿論 이미慢性經過를지나症狀이一進一退일때에――結核性消耗疾患에應用함에는、生物學的 理論에依하야 服用後激增되는 白血球及오부소닌等의 夥多한 抗毒系의 殺菌溶菌作用에依한 結核性菌、大腸菌의減退는、무엇보다 化學的消毒製劑에對한現治療界에唯一 한光明을준感이잇다

代表헤ー퀘劑、特許『わかもと』는 胃腸、結核其他의 消耗性疾患에 對하야 榮養消化、治療、溶菌의諸作用을 一劑에具有한 新生物學的製劑로써、至今은 新進醫家의 調劑室의 王座를占하고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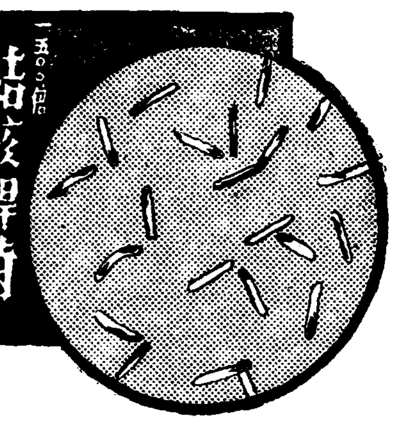
わかもと

(와가모도)

人生을支配하는二細菌



大腸桿菌 一五〇〇倍



結核桿菌 一五〇〇倍

◇人生을短縮식히는大腸菌◇

吾人의 排泄하는 糞便에惡臭가잇는것은 무슨까닭인가? 質問이너무나 平凡한것갓지만 우리의 大腸內에 菌芽의發育은가장旺盛하야、消化를免한 滋養物의殘渣、腸粘膜의 分泌物과相混하야、長時間滯留하야細菌의 繁殖에가장適當한培養基가된다、故로大腸內의 糞便의 三分一은全혀 細菌으로 形成된것이라하더라도 過言은아니다ー人糞이코을찌르는 臭氣를放하는것도 當然한일이다。

人體의 大腸管內는 그와가튼 經路로항상腐敗를식힌다。비컨대큰都會地下水溝와가티汚濁停滯를하고잇다하는譬喩는 오직우合꺼리뿐아니라、不衛生이라하는 熟語를가장妥當하게쓴다면、吾人의大腸은不衛生의代表的缺陷일것이다

鳥類에잇서서는空中에 飛揚하는 關係上、항상糞便을 排泄함으로써、大腸에細菌의 繁殖을許치안는다。그리하야鳥類에는 百年의生命을保持하는者가 적지안타ー人類의短命은무엇보다 大腸內에 大腸桿菌等이多量으로 繁殖하는弊害에基因된다고한다。

人體腸內에서 縱橫으로活躍하야有害한大腸菌、或은病原菌을溶菌、驅逐하는稀有의 有益菌헤ー퀘『わかもと』의發見은人生에對하야 큰寄與가된다。

◇人生을괴롭게하는結核菌◇

今日의 文明人으로써、結核菌에 걸니지아니한者는드물다。드물다하기보다업다 하는것이至當할것이다。老若男女、貴賤貧富、할것업시이病原菌에걸니여잇다。ー오직罹病의 程度가、所謂結核患者로써 發病의 徵候를나타내든가、그러치안흐면 自覺病狀을보기까지에潛伏한대로自然治癒가遂行되엿는가하는 差別를가저合에不過하다、幸運한多數의분은、不知不識間에病竈에 石火沈着을이르켜全身에 蔓延되지안코、오직局所性의 結核浸潤으로써 無事히 安全한經過를보게된것이다。

그러치만、先天的으로 腺病質型의분、혹은虛弱體質者、혹은 頑健한體軀일지라도 攝生의不良等으로 한번結核桿菌의 繁殖을防止함에 조흔轉機를이를때에는、結核菌은곳全身을移行하야 繁殖하며、드듸여結核患者의 悲慘한 末路를걸게된다。本病은날마다피와 살을깍거내는것가튼 感을繼續하야 最大의懊腦의疾病이지만、『わかもと』의 出現에依하야 救治가容易하게된것은 欣喜를이칠수업는일이다。

榮養消化 治療溶菌

結核菌大腸菌의消滅

喰菌가인――溶菌인가――

헤ー퀘(酵母)를服用하야、結核及腸疾患의治療가가장良好한것은벌서多數의 患者에 實驗되야 疑心할 餘地가업다。服用後漸次로、白血球及調理素『오부소닌』系數를顯著하게增大식히는것을 海外의學者도證明하고잇지만最近의 硏究에依하면、헤ー퀘는、動物體內에榮養的으로 付與된諸種의 殺菌性物質中、特히『防禦素』에 類似한、헤ー퀘의經口的投與에따라防禦素의 急激한增加를想定함에이르럿다ー純粹한헤ー퀘劑를選擇함에苦心한治療界는至今에야『わかもと』의出現에 依하야 흡사히內服血淸과가튼新治療物을獲得함에 이르럿다

○……○

防禦素(Alexin)은生活體 가아니라 一種의 酵素란것은 學界의推定이지만、그本質은蛋白性溶解性酸酵素(Proteolytische-Enzyme)와同一한 種類라고도말한다ー우리들은『わかもと』를 服用하야、그組成分으消化管보다 容易히 吸收되야、全身에 循環되는 狀態를볼것이며、또 한곳『わかもと』의 酵素가防禦素 그것에로 化한다는것은 早斷치안치만。그러나 防禦素를體內에旺盛하게激增하는事實에서 推定하면 特히處理된헤ー퀘『わかもと』와 防禦素와의關係는가장密接하다고볼수잇는것이다。

○……○

白血球가喰盡細胞로써의 作用은 周知하는問題이지만、防禦素는 病原菌을捕獲하는것이아니라。그것을溶解하며 消化식히는 것이라고論하고잇다。喰菌과溶菌의差는、免疫學을專攻하는분의 特히注目을 要하는 焦點이다。

○……○

『わかもと』를連服하야、大腸桿菌及結核桿菌이減退하는것은 어며움지기지못할事實이저만右의現象은白血球의喰盡現象의增加는勿論이지만。다서防禦素의溶菌作用이 二重으로 活動하는것이라고、推定되고잇다。

小學教育助成을위해

教育掛圖寄贈引換券

를活用하시라

小學校에서 必要한教授用掛圖가 良好한것이적다、잇다하더라도 費用關係로 完備되지안흔 現狀에鑑하야、わかもと本舖와育兒の會에서는、多少間이라도 小學校에 도음이되는事業을考慮하든中、今回全國小學教育界의 權威들로된教育資料會의 編纂에依한、優秀한教育掛圖 一百萬枚를 製作하야全國小學校에 寄贈키로되엿다

『錠劑わかもと』愛用하시는여러분은 一瓶마다 添付하야잇는掛圖寄贈引換券을 一枚라도헛되히하지말고 最處小學校에 寄附하기를願하는바이다 小學校에서는이 引換券을모와가지고 東京市芝公園十一號地 教育資料會에送附하면 規定枚數에應하야 請求하신掛圖를寄贈하여드림。

掛圖의內容

寄贈의掛圖는『小學教育掛圖』라稱하야、約新聞二頁大이며、一枚식되는것을每月約二十種을發行함. 內容을每月學課의進行에應하야 敎科書에連絡되는題材를擇選하야、각기專門家에게揮筆을맛겨、編纂委員들이訂正을加한敎授用으로서完璧을期한것이다各小學校에對하야서는問議하는대로 通知하여드립니다。

藥價低廉

粉末 九〇瓦 錠劑 三〇〇錠 一圓六十錢

全國藥店에서販賣하지만、直接發賣元에希望하시는분은藥價를送金하면一個라도急送함。

東京市芝公園大門際

株式會社 わかもと本舖榮養と育兒の會

電話(代表)芝壹七五番(外六本)

振替口座東京一七〇〇番

장이야 장바두!

家庭

하긔방학동안에 몸약한 아동은 어데로 보낼까

체질을따라 갈곳을 정할일
결핵성아동은 산으로

산이냐? 바다냐?

녀름이 오면 의례히 바다로 가거라 산으로 가거라 떠듭니다。그런 선소리가 발낫이 효험을 내서 그런것은 아니겟지오만은 여유잇는 분들의 생활에는 피서의 풍습이 유행되는 모양입니다。더구나 몸이 약한 애기네들을 위하야서는 일부러 업는돈을 주선하야 가지고 바다로 산으로 보내는적도 업지 안습니다。비단 가정에서만이 아니라 학교에서까지도 해수욕 등산회(登山會)를 꾸미어 놋습니다。그러나 무조건하고 바다나 산이나 아모데나 간다고 다 조켓습니까? 몸의 체질을딸아서 바다가 조흘사람도잇고 산이 조흘사람도 잇지를안켓습니까?

위선 바다로 말하건댄 물人속에 들어 가서는 차고 물人밧게 나와서는 또야벼치 나려 쪼이어 자극이 넘어나 심하고 또 졸변됩니다 물론 그러케 심하고 졸변되는 자극아래 몸을 단련시키자고 바다를 가는 것이나 몸이 원낙 약하야서는 백이어 내기가 어렵습니다。그중에도 신경질이나 결핵성의 어린사람들은 몸이 단련되기는커냥 오히려 병을 사게 됩니다 결핵성의 아히들에게 대하야 피곤하거나 괴로운것이 제일 해롭다는것은 여러분들도다 잘 아는바어니와 신경질의 아히들에게도 끄넘업시 언덕을 두드리는 물人결소리나 모래에 반사되는 강한 광선이나 다한께 재미업습니다。

×

거긔다가 비교하면 산은바다보담 공긔도 맑고 햇人볏도 세지안코 여러가지로 자극이 적어서 신경이 진정되고식욕이 증진되고잠도 잘 오게됩니다。몸약한 어린사랄들을 피서보내려고 할지댄 바다보담도 산이 훨씬조흘것은 물론입니다。그러나그것도 습긔가 만흔 산에는 늘 장마속가티 공긔가 축축하야 잇기때문으로 그다지 조흘것이 업습니다。더군다나 결핵성의 아이들에게는 주의하야 할일입니다

그러고는 또 아조 노픈산에는 공긔가 만치못하야 올라가서는 적혈구(赤血球)가 버쩍 늘게 되고 다시나려와서는그늘어든 적혈구가 도로 줄어 들게 되기때문으로 조치 안습니다。더군다나 몸이 약하야 그만한 생리변화에 견듸어 낼만하지 못한 아이들에게는 조흘 것이 조금도 업습니다。

×

그러나 산이나 바다를 물론하고 전차나 긔차人길로 여러 시간을 가가지고 멧시간 쉬지도 못하야 또다시 전차나 긔차로 시달린다는 것은 생각할 문제입니다。그것은 말만이 어린사람들을 위하는것이지 조금도 어린사람을 본위로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또 아모리 몸이 튼튼하야 바다人가로 보내엇더래도 또 다 각각 체질에 딸아서 물人속에 들어가잇는 시간을 제한하여야 합니다。보통으로는 하로한번 사람이 만치안코 물도 더럽지 안 할때 즉 열시서부터 열한시까지 한시간까량이 적당한데 좀더 건강한 아히들은 다시 저녁때 한번 더 들어가게하거나 또 한번에두 시간내쯤 용서하거나 할 것입니다。

요새화장 ③ 결발과미용

吳淑根

다음에목에는 화장수를약간바르신후에 목만은 유성(油性)크림으로잠깐 바르는등 만능하게 문질으고나서 담황색(淡黃色)볼분 그것도아조엷게해가지고 두번쯤발라두십시요。

×

그런데 눈섭、입살、뺨、이런부분화장(部分化粧)은 비교적지게해서 눈에띄도록하는것이 전체의 엷은화장과 대조(對照)가 되는가운대에 외계(外界)의청엽(靑葉)에 눌리지안코 어듸지 서늘한긔분이떠돌게됩니다。입살과 뺨에는 도색(桃色)이나 주홍(朱紅)을 피하고 명랑(明朗)한오렌지『비』치나 암색(暗色)오렌지빗중에서자긔살에맛는것으로 골라서 과히세게말것이요 눈섭은조선옷에는 연필로 양장에는『촉』으로 역시가볍게그리시고 입살에는 가튼계통(系統)의비츠로위는암색(暗色)、아래는명색(明色)、이러케 두가지색으로『베니』를 쓰시는것이 강렬한 [illegible]게됩니다。

×

이와가티 아름다운 화장을 한것이라도 땀한번만나고보면 여지업시 뭉긔여지는것처럼애석한일은업습니다。여름에 화장이 미지안는 간단한방법 한가지를 말슴하겟습니다。

다른것이 아니라 양약방에서 백반(白礬)가루를 사다가물한홉에 적당하게 타두엇다가화장이 끗난후에 그물을 탈지면(脫脂綿)에 축여가지고 얼골전체를 작신작신눌르시고나서 말으기를기다려 다시한번『퍼프』로다저두시기만하면 의외로화장이오래갑니다。

×

또 여름무더운밤에 모긔빈대에부대껴서 수면부족(睡眠不足)으로 혹이눈에 충혈(充血)이되기쉽습니다。그런때 응급수당으로는 량손의둘재손가락으로 두눈구석을힘잇게눌으시고나서 인해그손가락끄트로 눈눈을굴려 마찰을 하십시요 이러케하기를 연아문번하고나서 탈지면에『우이치헤-젤』이나 붕산수(硼酸水)를축여가지고 눈감은위로 이삼분동안만 눈을식히시면 보통때와가티눈이맑아집니다。

화장이지여진때

여긔서 다시화장이 땀에지여진때는 엇더케손길을 해야할지잠간말슴드리겟습니다。

약간민때면 손수건이다『까ㅣ제』로 얼골에내밴기름을작신작신 눌러씻고나서『컴팩트』로 가만가만히 다지기만하야도 고처지지만 워낙만히 기름이 내솟은때는 앗갑것업시 전부씻어내고다시『배니싱크림』을 바르시고그우에 분을바르십시요。

그런데 화장을 전부씻어내는데는 별로콜드크림을 쓰실것이 아니라 아모것도 바르지말고 그대로 얼골에 내밴 기름만 닥거도 다 지워집니다 여름철에는 너무『콜드크림』을쓰시면 얼골에 기름끼가만하서 화장이 더욱쉽게 지여집니다。

마힐에남달리 지방(脂肪)이 만흔신분은 얼골에내밴기름을 업시한후에『배니싱크림』도 바르실것업시 탈지면에 화장수를축여가지고 골고루발르서서 털구멍과땀구녕이 좁아든후에 분을바르실것입니다。이러케쓰실화장수는 미리탈지면에 축여가지고 화장품상점에서파는 조고만 소독긔(消毒器)속에너허가지고 다니시면 편리할줄압니다

그래고 특별히 주의하실일은 땀흘린때에 쓱쓱문질너 닥지마시고 반드시 기름종이(脂紙)로 [illegible] 수건으로자주문지르면 [illegible] 동안에 살섹이 거칠어지고 딸아서아름다운화장이어려울뿐더러 오래가지도못하게되는 까닭입니다

미용사노릇도 참 힘드러요

녀배우들도 여름이되면 해수욕이 하고시플테지요 그러치만 장사미천인 그고흔살결이 벼테꺼려 거칠게되면 안되겟다고해서 여러가지고심이 만흔모양인데 더군다나 미용사들이 죽을노릇이랍니다 영화촬영할때 보통때와가튼 희고 고흔살결로 꾸며노아야하거든요 이것이제대로 안되는때는 감독나으리가 사뭇쨍쨍거리긴하고……그래서『웨스트모아』란 양반이 발명한『스크린』을리용해서 벼테꺼르정도를아라가 거기에따른 화장을 식히게되어 겨우이재서야 안심하게 됏다합니다 (보십쇼 사진에잇는것이 바로 그『스크린』이군요)

가정의학

소아에도림질?

問 금년륙세된 녀아이온대 아래로부터 고름가튼것이 나옵니다 무슨병이오며 그치료법을가르처주시요

답 질루은녀입니다 봄병은녀아에게 흔히 오는데 그대부분은 림질균으로됩니다 이외에 물건 흑은 요충이 드러가서 또는 수음으로도 생기는데 이런때는 대장균이만습니다 이런점에주의하시면서 그국부를 안정케하고 Q『퍼센-트』『퍼센-트』뿐로라이드 결』수로더 만간산가리』로씨처주고 『요도홀음』을 뿌려주시요 이것은 집에서 치료가곤난하오니 의사의처치를 받는것이 조흡니다 만일 비혈증이잇스면 그것에대한 치료도하여야됩니다 (城大小兒科 李聖鳳)

기침이심하오

問 금년십구세의남자학생이며 학교륙상선수입니다 작년겨울부터 경기련습을시작하얏는대 그때부터 기침이나가기시작하엿습니다 봄에는조곰낫더니 다시 또 기침이시작되며 처음보다도 심하야젓습니다 때때로 허한이나고 찬바람을쏘이면 더욱기침이 심합니다 병명과처방을가라처주시기바랍니다 (平壤 고민생)

답 어떠한점으로보던지 당신은 선수생활이부적당한것갓습니다 기침이자조나며 차차심하고 허한도나게되니 단순한증세갓지 안습니다 무심하게버려두지말고 속히 자세한진찰을바더 치료방침을세우도록하시요 (聖母病院長 朴秉來)

신경쇠약일까

問 금년이십이세된 긔혼남자인대 오륙개월전부터 안색이 창백하고 수족이랭하며 소화불량증이 생기고 밤에는땀이만코 수면도잘못하며 꿈도만습니다 다무슨병일까요 엇떤의사에게 진찰한즉 신경쇠약이라하며『에로수』라는약을한제쓰면 원긔가 회복하겟다구하오니 그약을한제써볼까요 자세히지면으로 가르처주시기를 바랍니다 오개월전부터 부인과는 동거치안습니다 (茂山 金省生)

답 의사에게 진찰하니 신경쇠약증이라고요 대개그런증세인것갓습니다『에로수』라는약은 사용하여본일이업스니 효과운운을 말삼하기어렵습니다 물론신경쇠약이라고하고『에로수-』라는약을권하얏스니 그대로시용하여보십시요 특별한해는업겟지요 얼굴이 창백타하오나 대변을한번검사하여보게하심이 필요할것갓습니다 (聖母病院長 朴秉來)

동이프른아이

問 칠개월된남아가 약일주일전부터 대변이 프르고 자다가 잘놀나서 웁니다 흑열이 잇는듯도합니다 원인과 치료법을가르처주시요 (西大門外 ?)

답 납(鉛)든분을 만히 사용하지안으면 소화불량가튼니다 그러나 그런증상이 잇서도 아이가 잘놀고 전보담 살이 빠지지 안으면 치료치안코 그저두어도 상관이업습니다 만일그러치안흐면 다음약을 일일 사회식먹어보시요

아에비오스 乳酸칼슘 라쿠도스타제 뿌루-루 〇〇〇〇一、一五五五〇

(城大小兒科 李聖鳳)

이세국민을잠식하는 소아결핵 예방과대책은무엇

城大小兒科研究室 李聖鳳

접촉이하든지 흑은 몬지에석긴 결핵균을 흡입하든지즉공기전염이되든지 흑은 결핵균이 소아의 기구어디던지부터서 전염되는즉 접촉전염으로써 오는때도 잇습니다 그중전자가제일만흔대 결핵균을밧는 환자가약두자이내의 거리에서 기춤 자채기를해서 결핵균을 뿌릴그때 소아가균을 흡입함으로써 감염됩니다 따라가정전염이 만흔것도 이때문입니다 이제부모가 결핵잇슬때의감염률을보면 량친다결핵이 잇슬때 제일만코 어머니만 결핵이 잇슬때가 그다음이고 아버지만 결핵이잇슬때는 감염률이 퍽적어집니다 즉 이것은 아버지는 어머니보담 아이에게 접근하는 기회가 적은때문입니다『스구이ー루』의조사에 의하면 소아결핵전염률은 량친이다폐결핵환자임때에 삼십구『퍼센ー트』、어머니만이 그환자일때에 삼십사『퍼센ー트』아버지만일때삼십일『퍼센ー트』된다고 보고햇스며 또『께ー올』는 소아결핵의 사십팔『퍼센트』는즉 약절반은그부모에게 결핵을 증명햇습니다이것을보면 소아결핵의 반은부모가 감염시킵니다

소아는 결핵균을 뱃는환자와 접근해잇스면 대단히 속히감염되는대 이제 그시일을 말슴하면 이삼일가티잇서도 감염되고 제일쩌른보고로는 겨우몃분간가티 잇섯는대 감염되엿다가 잇습니다『스부레』씨는 팔십팔명의 결핵소아에 대해서 그병모와 동거한 날짜를조사한것에 의하면 십오일이내가둘、십오일 내지 삼십일이 셋일개월 내지 이개월이이십사、삼개월 내지 륙개월이 열넷、륙개월 내지 십이개월이 [illegible] 십이개월 내지 십팔개월이 십팔 십팔개월이상이 둘이라고햇습니다 즉 이것에 의하면 삼개월간 가티잇스면 약 반은 감염[illegible]단히 적습니다。

그런데 병든 조부모가 잇슬때는 손자에게 가까히하는 긔회가만코 또 로인의 폐결핵은 본인이 그리 고롱하지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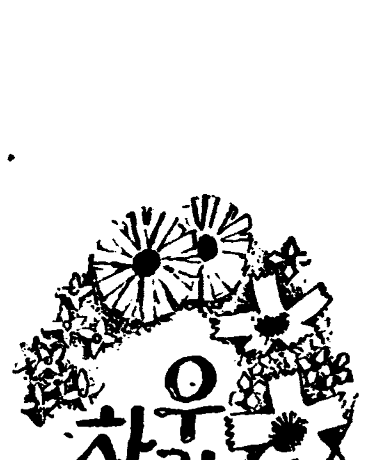
하고 륙개월까지에 가티잇스면 거이 전부가 감염됩니다 이것은 결핵환자의 주의、부주의에 관계되는데 어떤사람의 보고를 보면 폐결핵에 걸린 량친과 동거해서 수십년을 지내도 아직 감염되지 아니한 아이도 잇습니다 량친에 다음 전염시키는 것은 누이고 형은 유아에게 접촉하는 긔회가 적으므로 감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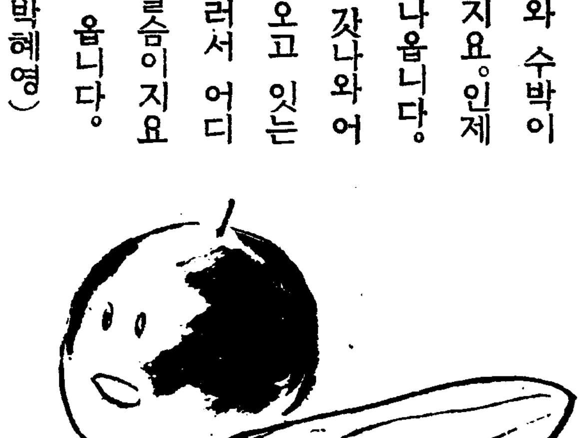
그런중 손자는 자식보담 떠귀엽다고 아이를잘보는 우리조선의습관상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염될기회가 병부모의 다음갑니다 아이가자랄사록 집밧게서의 감염률이점점늘어갑니다 이것은 하교흥은 다른사람과 접촉할기회가 만키때문입니다

그다음에 동물로부터 소아에게 결핵이 감염될때는 거히전부가 결핵소의 생유(生乳)흥은 소독이 불완전한 우유을 먹이므로써 생깁니다 가루우유 우락(牛酪)건락(乾酪)등의 우유제품에서도 결핵균을혹 발견할때가 잇습니다 그럼으로 이것들의 음식에의해서도 흑감염될수잇습니다 이와가티 전염되는것을 식물성 흥은 장전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다행히 이것은 대단히 적습니다 소아외의 동물 축개 고양이등이 결핵에 감염되여서 전염원이되고 흥은 닭 기타조류가결핵에 감염되엿슬것을 잡아먹는다든지 계란을 먹어서 닭의결핵에 감염되엿다는 등의 례가잇습니다 이것을보고 계란애용하는이들은 흑결핵이무서워 조화하지아니할분도 잇슬듯합니다만이런것은 극히 희소하므로 문제안됩니다 다만 이러케도결핵에 감염되는것을 여러분께소개하여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히먹는것이 영양상으로보아 대단히 좃습니다

여러분 참외와 수박이 잡수시구 십지요。인제 몃칠안가서 나옵니다。지금 바테서 갓나와어 정어정 거러오고 잇는 중입니다。거러서 어디로 오느냐 말슴이지요 우리 가개로 옵니다。

(글쓴사람 박혜영)





★曆★
七月四日 (土)
陰曆丙子五月大(十六日)
丁亥·土·女·軫
●祭祀에宜함
●夏至二十一日(陰初三日)
●小暑七日(陰十九日)

動物愛話 ④ 앵무새의 "섬""부름"꾼"인개"

崔秉和 / 崔桂淳 畵

동일『메크렘부르그』라는 동리 어느집에 개한마리와 앵무새한마리를 길럿습니다。두김생은 다 영리해서 개는『따따루르』도 『춤』도『땅재주』그외에 여러가지재롱과재주를 잘부리고 또 앵무새는 사람의말 흉내를잘내고 노래곡조와 입버릇까지 곳잘 흉내를 잘내엿습니다。사람의말만 아니라 개짓는소리까지도 흉내를 잘내엿습니다。

오래동안 한집에잇서서 자주맛나게됨으로 앵무새와개는 서로 몹시 친해젓습니다。새장을 마루끗에내노면 개는 박게서 새장에다 코를문질르고 앵무새는 새장안에서 주둥아리를 내미럿습니다。그리고서로 얼골을 울

그럼이 마주들보고 이[illegible]다 어느때는 둘이가 가티 울고잇슬때도 잇섯습니다。

이집주인은 개에게 혼자 심부름가는것을 아르키기 시작하엿습니다。

『벨!벨!』하고 개의이름을 부릅니다。그리고 개가 껑충껑충 뛰여오면 『빵가게 갓다오너라』하고 말합니다。그리고 돈을넌 조고마한 바구니를 목에다가 거러줍니다。그러면 개는 그대로 한다름에 빵가게로갑니다。빵장사는 돈을밧고 빵을바구니에 너허줍니다。개는 다시 집으로 도라옵니다。

이러케하기를 몃번이나 되푸리하면 개는 빵가게가는것을 잘알고 조곰도 틀리지안코 척척 잘하얏습니다。얼마후에는『벨!벨!』하고 부르기만해도 부리낫케 바구니를 물고왓습니다。

주인은 나종에 바구니에 돈을안너코 외상으로 사오는법을 또 아르켜주엇습니다。

『외상!』하고 말하면 개는 돈안든 바구니를 목에걸고 뚜뤄여나갓습니다。장속에 드러잇는 앵무새도 이꼴을 똑바로 보고잇섯습니다。그리고 앵무새는 그때 주인이하든말을 다 외엿슬뿐아니라 입으로 말도할수잇게되엿습니다。

그달 금음날 이집주인은 빵가게에서 적어온 빵갑을보고 혼자중얼거렷습니다。

『빵갑이 이러케만흔가?』 주인은 끔끔이 생각하드니

『암만해도 이상하다。이러케여러번 외상으로 가저오림이업슬텐데』하고 즉시 안주인을불러서 무러보앗습니다。

『여보! 이달에 빵가게에서 외상으로 드려다먹은것이 얼마나되우?』

『외상이무슨외상예요。맛도만추고 사왓는데요。나도 엇전지 만케생각이드럿세요』하고 안해가 대답하엿습니다。

『얘! 어기스트야!』즉시 큰아들 어기스트는 아버지아프로 왓습니다。

『너 이달에 빵가게서 외상으로 드려다먹은일이잇지?』

『제가요?』

『그래』

『그런일업습니다。』큰아들의얼골에서는 뜻밧이라는듯한 표정이 역역히나타낫습니다。

『얘! 울피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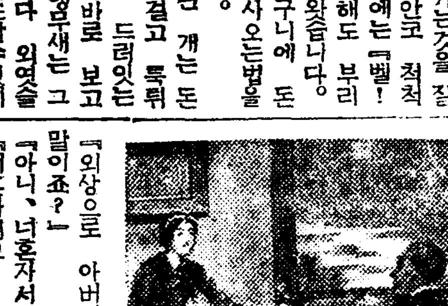
『네!』하고 큰딸이 아버지아페 와섯습니다。

『너 이달에 빵가게에서 외상으로 드려다먹은것이 혹시잇니?』

『외상으로 아버지가 드려오신것말이죠?』

『아니、너혼자서 먹울냐고』

『저혼자서요……그런일을 엇데케……』



큰딸은 아버지가 누명을씨우는것이 원망스럽다는듯이 눈물이글성글성해가지고 아버지를처다보앗습니다。

『빵장사가 잘못셈을 치지나안헛나?』하고 주인은 이러케말하드니 더아러볼려고 하지안헛습니다。

그어느 맑게개인 따뜻한일요일날 아츰이엿습니다。뜰을 산보하고잇든 이집주인이 어디선지『벨! 벨!』하고 개를부르는 소리가남으로 가든거름을 멈추고 그소리나는쪽을 바라보앗습니다。그곳에는 발목을 쇠사슬로 매인채 장속에드러잇는 앵무새가 잇슬뿐이엿습니다。개를 부른것은 사람이아니고 앵무새엿습니다。

벨은 급히뛰여 오드니 앵무새아페와서는 꽁지를 흔들고잇섯습니다。흡사히 주인이 불른때와 똑가티 그러니깐 음성도 말씨도 꼭 주인이 하는거와가튼 말소리엿습니다。

『빵가게에가서!』그것은 앵무새의입에서 새여나왓습니다。이말을듯자마자 개는 몸을 핸돌리키드니 조고만바구니를 물고두번재 앵무새아프로 왓습니다。맛치 주인에게 하는거와똑가티

『외상으로!』두번재 주인과똑가튼소리가 새의입에서 흘러나왓습니다。바구니를 입에문채뛰여나간개는 얼마안돼서 과자를잔뜩담은 바구니를물고 도라오드니 그것을 공손히 새아페노코는 압발로 가볍게 땅을파면서 새를바라보고 잇섯습니다。

그것은 심부름갓다온 삯으로 주인이 과자를주기전에 언제든지 벨이하는 버릇이엿습니다。

그러니깐 앵무새는 손대신에 으라진 발톱으로 새장속에서과자를 떼미러 주엇습니다。그리고 둘이서 잔잔코 맛잇게 과자를 먹기시작하엿습니다。

나무뒤에 숨어서 이광경을바라보든 주인의눈은 보고잇슬사록 점점 크고 둥그래젓습니다 그리고 딱 벌린입을 다물지못하고 안으로 드러가서 안해와 아이들에게 자세한 이약이를하엿습니다。

『이달에 빵가게에 외상갑이만흔까닭을알앗다——참 놀날일이다。』

—(第四話終)—

長篇小說 보리방아 【一】

蔡萬植 作 / 崔賢郁 畵

남방의 농촌에는 이런 풍경이잇다

×

용히(容姬)는 그늘 지튼 뒷마루에 바누질을 차리고앉저 자즈라지게 골몰해서잇다

샛노-란 북포로 아버지의적삼을 커-다랏케 짓고잇는것이다 날베가 되어서 여기말로하면 비츤 꾀꼬리가티 고아도 동리가 시끄럽게 버석어린다

급한 바누질이다 그러나 거진 다 되어간다 고의는 발서해서 여페다 개켜노앗고 적삼도 시방 깃을 다는참이다 그래도 용히의 손은 바뿌게 놀고잇다

고흔 손결이다 방아도 찟코 부엌에서 진 일도하지만 매듸도 불거지지아니한 몽실몽실한 손가락들이 끗이 쪽쪽 빠젓다 손톱이 복사꼿닙가티 곱다 소곳한 이마와 날신한 코人등에 땀방울이 잘게 소삿다 불크레ㅣ한 볼이 갸름하게 턱으로 굴러내려가다 아죽 배내털이 송글송글하다

내리깔고잇는 눈이 그래서 눈초리가 더 올라가보인다-봉의눈

따어내린 머리채가 마루에 닷고도 남엇다

기름人기업는 머리깔이 멋개 이마로 처저 가끔 손질을 식히군한다

용히는 실이 다된 바눌을때어가지고 실패를 찻다가 문득 숨을 호- 내쉬면서 고개를들고 잠시 우둑허니 생각을한다

전에 보통학교에 다닐무렵에 학교에서 도라오는길이면 더러 장터에사는 동무의집에 들러서 어더써보든 재봉틀을생각이 낫든것이다

그러나 그 편하고 재미잇는 것도 학교를 졸업하든 재작년 봄까지가 써본것이 마주막이요 그뒤로는 들어안저 내우를하느라고 장터에도 들어가보지못햇고 그래서 영영 재봉틀이라고는 구경도 못햇든것이다。

꿈에는 더러 재봉틀바누질을 해보앗다 용히가 제것이라고 사노코 쓰면서 조하도햇고 또어쩌다가 산산 부서지든지 누가 빼서가든지해서 울다가 잠이 깨이면 꿈이군하엿다 그래서 용히는 인제 기어코 재봉틀을 하나 사가지려고 끔끔히 마음을 먹엇다。

어머니를 졸라 이웃 집에서『배맥이』로 암도야지새끼 한마리를 어더다가 실상 며여길을 수도 업는터에 용히가 제목으로걸르고잇는것도 인제요원(!)한장래에 재봉틀을 사가지려는 커-다란 포부에서 나온것이다

잠시 생각에 잠겻든 용히는또 한번 숨을 호- 내쉬이면서 실 때를 차저 실을 뀌어가지고손을 부즈런히 놀린다

오월이라고 하지만 유월날이든 엇서기때문에 유월볼이다

뒤 울타리로 수타게 뻐더올라간 호박넝쿨의 탐탐 호박닙들이 내리쪼이는 볼버체 맥이업이 처저잇다

울타리 넘어로 닥어선 언덕의 솔숩에서 향깃한 송진내가 나른한 이품에 섞겨 자치어시 습여내린다

울타리 미트로 기다라케 두어두터되는 고추바테는 시겨어케 자란 고추대에 세살백이가 튼고추가 발서 열렷다 앵도나무에 앵도가 구슬처럼 새빨가케다다다다 들어부럿다

암닭이 그늘진 울타리미테서 팍팍어리며 메롱해 적어리다가 갑작히 생각난것처럼 해를치며

『꼬끄——』

길게 한마듸 운다 뒤미처 신사(神社)에서 치는 오정북소리가 감감히 들려오다가 근친다

그리고는 사방은 다시 바스락소리도업시 고요——하다

해는 태고人적부터 이러케나 진드시 늘어지게 길다——축축한 밤은 이저바린것처럼——。

마을도 할머니의 옛 이약이가티 조용하다 졸립게도 조용하다

열어노흔 압뒤문으로 마주차는 가는바람이 땀이숭인 용히의 이마와 등을 가볍게 스치고 지나간다 그럴때마다 자릿한 쾌감에 그는 갸룻한 눈을 더욱 갯소롬-하게 뜨군한다

노인이라면 그대로 솔펏이 일감을 노치고 조흣스리라 그러나 용히는 초랑초랑한 눈으로 바눌잡은 손을 바즈런히만놀린다

한코 또한코 이러케 재게 나가다가 필경 실끗을 똑 잡어떼이면서 허리를 펴고 잘컷든 한숨을 내쉬일때에 압마당에서 갑작히

『두ー 저런놈의도지자가!두ー』하고 발을 굴으며 웨치는 요란한 소리가 이러낫다

잠집하게 놀란 용히는 압마루로 뛰어나갓다

七月創作評……(其一) 저날리즘以前의作品

李石薰

麻浦江邊에서 職務를 遂行할일이생겨 처음으로 麻浦街道를 自動車로 달리는機會를 가젓섯다 電車를 複線으로도하기爲한 工事가 한창버러젓고 左右에는 아직도 空地가 만히남어잇스나 그러나 큰집들이 띄엄띄엄 드러서서 將來의發展을 豫想케한대 바야흐로 建設工事가 進行되는風景은 一種愉快한느김을 주는것이엇다 적어도 달리는車中의 一瞥로는 그러케보엿다。수만흔 생선배가 둥실둥실한몸을 서로비비대며머물은 江邊의風景도 오래간만에 新鮮한快感을주엇다。

그러나 집에도라와누어서 가만히생각해보니까 愉快했던느낌속에서 하나를 그려치못한記憶이 鮮明하게 떠오른다。일에疲勞한 께께말은일꾼들의얼골 더러운먼지 고기를서로다투어사려다 싸우는사람들──이런것들이 依然히 이現實에는 뚜렷하게잇섯던것이다。

大體나는 무엇을말하려고 이러엉뚱한 이야기를 끄집어냇슬까? 나는 本報學藝部로부터 七月創作評을 쓰라는 重大한命을 밧고 난생첨으로 절절매고 잇섯던것이다。내職務를 江邊에서 遂行하는 어느한分時를 이생각에 골독하지안헛섯스랴! 흉허물업는 친구들끼리가든면 어느作品은 어떠코 누구의것이 잘됏스며 또어느것이 拙作이라는等 寸評式放言은 例事로할수 잇는나이지만은 정작붓을드리文字로써 남의아페 發表를하게되니까 아닌게아니라 어쩐지 겁이난다。

來日나가서 잠아못쓰겟소하고 拒絕해버리게 聲明하지안홀까? 어뎨한번試驗的으로 해볼까? 망서리면서 爲先 여페잇는「中央」七月號를 들추어보앗다。方仁根氏가「悲戀」이라는것을 시작햇고 蔡想涉氏가「靑春의航路」를 두回째썻다。둘다長篇이다。채끗도나기前에 이러니 저러니 하는것이 어떨까하지만은 事實은 단한回치라도 問題될것이 만흔듯하다。

方仁根氏는 前에어떤作品을썻는지 나는통몰으고잇다 勿論이것은 나의게으른탓이지만은 이때문에큰損失이 나의便에잇는것가리는안타 이번에도 氏가어떤作品을썻든지 도몰으고 지날뻔하엿섯는대 딸짜에도업는 時評의붓을들게되여 첨으로 方仁根氏를 대개는짐작하게되엿다。

具體的批評은 다음으로미루고 大體

朝鮮의大部分의 小說은아직 저-날리즘 以前이라고 나는생각한다。日前에鄭芝鎔氏를 맛나서도 한이야기지만은 大部分의小說이 제-날리즘으로 흐른다고 적하면 評家들은 慨嘆하지만은 事實은 아직제-날리즘의레벨에가려면 相當한日數를要할 그러한 處地에잇는것이다。

가령大家라고하는 명명分과 旣成作家들의作品을 읽어보랴。아무리 尊敬하고읽는대도 절반을 넘겨읽을수가 업스리만큼 거기에는 無味乾燥한沙漠이 빗겨잇는것이다。서투른文章에 자미업는레-마에, 짜자분한잔소리에무엇을 表現하려햇는지 分明치안흔 무둘한描寫에 우리는 그만내동댕이를치고시픈 厭症을느끼는것이다。이런興味업는 文字의遊戲에果然感動될사람이 멧사람이며 도대체끗까지읽어주는사람이 멧사람이나 될것인가? 만흔사람에게읽히우고 만흔사람에게「아필-」하는것이 저-날리즘일진대, 오늘날의 大部分의 作家가 아직도 저-날리즘의 數步에서 제깐에는「藝術作品」을 쓰고 잇노라 自負하고잇는것이다。果然, 저-날리즘 그것은 藝術이 아닐지몰은다。그러나 저-날리즘과업리떠러진 藝術作品을 누가 읽어줄라 하는가? 勿論 만히읽히우는通俗小說이 傑作이 아닌것은 確히 小數人에게만 理解되는것이 藝術이 아닌것과 마찬가지다。

朝鮮의 批評家中에는 원래미천이바튼데다가 多分히 情實에만 끌리는 좁한 人間이아니면 아첨이나하야 自己의地位를 維持하려는低劣한 根性을가진人間들이만키때문에 웬만한作品이라도 親舊의것이면 붓끗을호리고 우울家들을하다가 結局은「未來에는 큰傑作」이니 머니하고 추켜세움으로 朝鮮文壇에는 事實 얼마만한 力量을가진作家가 며치나되나, 하는것이 너무나 模糊하고混亂한狀態에 잇는것이다。그러므로 나는 일즉이「批評家無用」이란 手榴彈을 던진일이잇다! (계속)

世界的提琴家 『티보-』의 印象 ②

金管

티보-의 레파토리는 그러케 풍부하지안타。그것은 티보-는 自己自身을 數만흔 作曲家의 作品에 適應식히려하지아니하고 自己의 趣味에 適合된 作品만을 選出해가지고 거기다가 生命과 美를 집어넛는 藝術家이기때문이다。그런 意味에서 모-자르트의 作品은 티보-의 바이올린을 通하야서는正히天下一品으로 變하고만다。一見, 모-자르트의 初期의作品은 單純하고 簡潔한듯으로何人이나마 演奏하기에는 無難한듯이보이지만 그것은 모-자르트가머리에서 생각한曲想의뼈격(骨格)만을 記錄하여노흔것으로 사실그것을 再現하는일이란티보-와가튼 高貴한 音樂的天稟의 所有者에게 맛길일이다 그럼으로티보-의 모-자르트는 시게티-나 하이펫츠가튼大家들의演奏와도風趣를 달리하고잇다。其他 빠흐의古典物, 타르티-니, 뷔타르리-데보라-느 等의作品과 近代로는 포-레, 산, 산-즈, 푸랑크, 데뷰-시, 쇼-손, 라벨의 作品等이훌륭하다。그럼으로 티보-의 昨今二十餘年을지낸 演奏프로그람을 一覽하면 대개는 上擧한作家의것이 繼續되여잇다。그러타고 同一한 立場(態度)와 解釋으로서 똑가튼길을 것고잇는것은아니다。지난밤 獨奏會에서 보면 그의演奏는 하나의法悅境에이르고잇슴을보이고잇다 批評가튼것을公論할時機를 이미通過한 熟練된技巧의 神秘와 藝術的感銘의百퍼-센트는 그가얼마나 眞摯된아-티스트인것을 알수잇는것이다

『公衆가운데서演奏할理想的바이올린의曲目을 내가생각하는바에 依하면絕對的인 音樂으로成立된것이아니면 아니된다 만일大家의 作品을包含하는 境遇면 그作品은 自己를 推薦하는대足한 魂이라든지品格이라든지或은高雅性, 魅力가튼 一定한 音樂的特質를 가저야한다」 티보-는 다시게속하야 말하기를『公衆을 敎育하고 그公衆에게 노픈鑑賞의 標準을 주겟다고 希望할때처럼 音樂家를邪道로 끌려하는일은도업다 나는 얼마전 有名한 獨逸提琴家 伯林에서 演奏하는것을 들을일이잇다 그날曲目으로말하면 바이올린과 피아노를爲한 三部曲 스크립(Transcribe)된 드란으로 實로 그것은 世界가운데서 演奏된 제일最後의것이다」 그는어되까지던지 典雅하고 高尙한貴族的인藝術家의 態度로서 모든것을보는 音樂家다。그의레판토리에잇서서 重要한 一部分을 이루고잇는 近代西班牙와 佛蘭西作曲家의音樂은 追從者를 허락하지아니하는境地의것으로 獨特한티보-의 解釋은 여러가지로 說明할수잇겟스나 그는 드뷰-시 또는 그라나도스 알베니스 데, 달라等과는 親密한친고인데잇스니 그들의作品의 性格과 感情을기피理解하는대서 가아닌가생각할수잇다

東京留學生들의 學術研究會創立

오래동안沈滯狀態에잇든 東京朝鮮留學生界의喜消息하나─東京의 各專門學校와 大學에 在學中인 朝鮮留學生有志約二十名이 지난二十五日午後六時 東京市神田區駿河臺下南山莊에 모히여 學術研究發表와 人格의涵養을目的으로 朝鮮學術研究學會創立總會를열고 會議한結果年二次會誌發行研究發表會座談會及 討論會 學者 招聘會等 其他 適當한 事業을 開催키로 決議하고 新任執行委員 選擧가잇슨後 同十時頃에 閉會하엿다 不日間同會의 宣言文을發送하겟다하며 朝鮮學生諸君의入會와 各方面의 만흔後援을바란다고 ▲執行委員 總務 朴容七 庶務部 張載性 徐載哲 ▲財務部 金昇泰 李容漢 ▲研究部責任者 禹三興 政經班 禹三興 法律班 趙一浩 史學班 趙東源 文藝班 金鍾吉

消夏雜記 冬帽·夏帽 (一)

嚴興燮

여름엔 산뜻한 파나마帽子나 그러치 안흐면 麥藁帽子라도 써야만 季節에어울니는줄 모르는배는 아니지만 아직까지 冬帽를 그대로쓰고 단이는사람中의 하나가 나다。

여름에, 冬帽를 쓰고단이기란것재쓰고다니는 나自身부터 거북하다。말하자면 昨年가을부터 겨울내, 또다시 今年봄철을겨도록 내머리ㅅ때에 절고 이마ㅅ땀에 얼룩진 廢物될대로 다된 내帽子! 그것을 더운여름철에 그대로쓰고 단이기란 生理的으로보아 不衛生的이며 美學的見地로보아 醜에틀림업시며 帽子商人의 惜恨의 對象으로될것이며 社交上으로는 한개ㅅ을과 嘲笑를 보이는것가리 그다지 氣分조흔일은 아니다。

實相은今年도 첫여름 부터 여름帽子를 한개사쓰려고 帽子店을 지내칠때마다 생각이업든것은 아니엿다。

그런데 공교롭게 帽子갑될만한 돈푼이 녀녀히잡지에들어 잇슬때는 웬일인지 帽子살돈을 깜바 이저바리다 그러다가 다른데 다써버리고 [illegible] 그돈으로 [illegible] 하고 넘뚝치곤한다。이러하야 그러저럭 여름도 이 [illegible] 일으럿다。

七十錢짜리나 만히야 一圓 [illegible] 一年쓰고내버려도過히앗가지안흘 허름한 麥藁帽子쯤은 살수야 잇다。

그러나 웬일인지 내習慣에는 麥藁帽가 잘調和되지안는 事情이숨어잇다。

그러기때문에 [illegible]을나온뒤 거이十二三年間을 帽子를써나려와긴하지만 麥藁帽를사서써 보기는 至今부터 九年前인여름帽子에 經驗이엿슨 어느한해 여름밧게업다。그밧게는 景氣가 조흔해라야 파나마帽를 썻고 그러치 안흔해는 冬帽그대로버티여나려 울지언정 麥藁帽는 쓰지안햇다。

「자네 돈모으려나? 여름帽子도 안사쓰고……」

어떤 벗들은 이러케 빈정댄다。

그러나 여름에 冬帽를 쓰는것이 여름帽子를안사는 만콤 經濟가되는것가려 얼핏생각이될는지 모르나 實相은여간 큰 不經濟가 아니다。

첫재 겨울帽子를—아모리갑이비싼놈이라도—七、八月暑陽에 쪼이고 나면 變色되고 땀에절고 소낙비에 뚜두려맛고해서 아조 틀(型)이 비틀어저바리기때문에 그해겨울에 또다시 쓸 勇氣도 愛着도 새암솟지안는다。

그러므로 八、九十錢을 앗기다가 四、五圓준 冬帽를 망처버리는것은 俗談에「손톱미테 가시드는줄은 알면서도 염통에 쉬쓰는줄은 모른다」는 말과 [illegible]性을 가젓다고나할까!

허기야 三四圓짜리를 내서라도 파나마帽한개쯤 사쓰지못할내아니엿만 엇젠지 帽子가 올테에對한關心이 昨年보다도 今年은더엷어저가는것갓다

이것이 아직도 젊어잇서야할내마음이 임이人生의絕頂을 넘어 나림길로 밀여떠러저가는한過程의 反影이나 아닐가? 저옥이憂鬱해지기도한다。

이런생각을하면서 灼熱아래 묵직한冬帽를 머리우에 가벼운듯이언고 거리를것는 내이마엔 苦汗이방울방울굴러나린다。

漢詩

綠陰 押鶯

桐岡考選

佳作五之九 大邱 許 浞

樹樹連天入望平
綠陰深處囀黃鶯
煙沉古郭依依合
雨歇長堤藹藹明
花是前身渾似夢
草惟本色可同情
納凉醉客甘眠久
忘却悠悠盡日程

漢詩募集

題…薔薇
押…香
限七月十日
薄謝進呈

盛夏風景 (六)

安夕影

비가 온
다
갑싼 내
구두에 물이밴다
아모리 당신이 오늘 나를찬
심으로청하셧드래도
남의 발잣까지보는
당신의집 마루를 나는올라갈
수가업소이다
유래사람으론
산등메를 품면
대야에 물을 떠온다는데
당신들은 쥬-만도 못하외다
그사람들이 이따에서낫다는당
신들이지만……
◇
아이를 엽어켜든
우산을 그아이를 위해바드시
요
그래도 그아이가『내아들』『내
딸』이라고
볼기짝을 뚜드리며
입을마초시겟지요
당신가리
거짓이만흔 어머니는 다시업
소이다
당신가리 희생을모르는 여인
은 다시업슬 것이외다
그리구 비를마저 병들면
당신은 그아이무덤아페서
애고-애고- 우실테지요
◇
이더운여름에
당신들이 무에 사랑이잇고의
리가잇고 인간미가 잇다고
그땀난손으로 그의손을 잡고
흔드십니까
묵묵히바라 보고 웃는것이옛
날부터의 인사인데요
악수는 맹서를 의미함이랍듸다
나는 이때의 여인을 볼때마
다 그들은 병드른 여인으로
진단(診斷)합니다
그것은
그들의눈에 지혜가업습니다
그들의 코가 무엇을 맛는대
연지를 모릅니다
다만 갑싼 오리지낼 향수를
맛는것갓기때문에……
그입은 칠목을 모르고 아이
들보고 욕하고 사나희보고폭
백만하는
그런입갓사외다
그입술에 연지를칠해도
그것은도리혀 살괴가 등등할
뿐이외다
새사람들이『현모양처』라는말을
실혀해도
다행이 그현모량처 될여인이
보히지안흐니 속이시원하실것
입니다
더구나 이여름의 여인들은병
드렷습니다
사나희들 보는눈이
무섭기만합니다──(꼿)

戲曲 風浪과의싸홈 ①

예-츠作 林學洙譯

──힐도·반·크룬에게 탈출만들어준──

【登場人物】
樂士 甲、乙、丙
쿠훌린
쿠훌린의幽靈
에머근
에이트네·잉구바
쿠훌린의形狀
시-의女人

序

樂士들과 登場人物은、舞臺에 업다 다만불결(帷幕)의 그려진『커-튼』이잇다한『쿠훌린』의탈을 쓴사람이 칼과방패를 들고 下手에서 드러온다。그는 風浪과싸우는 사람을表現하는『땐스』를한다 다른사람들이드러와 뒤노는『물결』을 表現하는『땐스』를한다 그의발과방패는 결국보아 그는물결들그의원수로생각하는모양이 압도한듯점점주저안는다。그리고 눈초리를모다 한히미한먼곳을 뚜려지라처다본다。暗轉。다시밝혀젓슬때는 舞臺는空虛。樂士들이드러온다。『커-튼』을兩쪽으로갈라서서 노래한다。

樂士甲
여자의아름다움은 연약한 힌
새와갓도다。
쪽풍그친새벽、가라는 평원두
구렁사이에 떠러저잇는 외로
운 힌물새와 갓도다。
갑작히 인 쪽풍에 그는 가
라는평원
그것은 구렁사이로 걱구로 처
박혓나니。
이 물할발한 영혼이
독수리도 못들를곳 두러지도
못은들곳
들리지도 안콧 보이지도 안
흔곳이나、그냥렌 알키메데스의
상상인들 따르지못할
그 거리 헤아리고
그아름다움 그우에 노피느라
고
멋세기를 멋세기를 수그려왓
던고?
기이(奇異)한 호화로운 것
이여
해돗기전 모래바테
저 지친 풍낭이 소리치고 내
던진 적고 민첩하고 파리한
자개여、
쪽풍이 일매 문득 그는
저해돗기전 암흑으로 떠려젓
도다。이무삼 죽엄이뇨? 이무
삼 최후뇨? 마음의 미궁(迷
宮)속에 기피 그려진 아모
도 끄를수업는 이무삼 운명
이뇨?
이무삼 추적(追跡)이뇨? 도주
뇨?
그『아름다움』이 가져온
이무삼 상채기뇨? 피흐르는압
박이뇨?

【커-튼이열리매 樂士들은 벽에의지하야선다。커-튼으로 둘린寢床이잇다。寢床에 누은사내는쿠훌린이다。그러나 場面은아까그땐스하든사람과 가튼탈──즉쿠훌린의 탈을쓴 딴배우의登場으로전개된다。에머근은 寢臺여페서잇고 쿠훌린의 幽靈은寢床발여페 쭈쿠리고안는다。】

樂士甲【말로】나는 그대들의 안전에 연기로더러핀 한가난한 어부의집을 뵈이노라。추녀끄테는 그물들이걸리고 여기저기노(櫓)도걸렷다 방한가운대 침상에는 죽은─아니면 기절한 한 사내가잇다 이것은 그의평한『쿠훌린』이다 그모든종류의 창과칼을 가지고 세기로제일가는사내 여자의 사랑을 획득함에도 제일가는사내 그의안해『에머근』여왕은 그여페잇다 그러나그외에는 아모도업다 그여인이 모다를불리처버렷슴으로 그러나 저기『도어』뒤에서는 뉘귄지서서주저하고잇다 드러오고 시프면서도 두려워서못드러온다 이녀『쿠훌린』의 작은댁 나이어린『에이트네·잉구바』다。

이여자의뒤에는 열린『도어』를 통하야 거치른바다가보인다 寢床발뒤에는 凝衣입은『쿠훌린』의 幽靈이 푸러업디렷다。

樂士甲 (노래로)
한 자개여、한날개여! 나는
내 동모로、떠단이며 춤추며
다만 아니니 물은 가업고 가
업고 바람은 끄힘업시 분다
운 너를 풀르지는안켓노라。
에머근 일루오오。와서 이친
상여페안구려。놀래지말고。잉구
바를 델려보낸건 내엿스니까。
에이트네·잉구바 아녜요、부
잉 저는 부인께 너무죄를만히
지여서 가안줄 면목이업서요。
에머근 외세상에서 다만우리
둘만히 여기가티 안처서 저이
를 바라볼 권리잇는 사람이야。
우리둘이 그를가장 사랑하얏스
니까。
에이트네·잉구바(가까이오며)
저이는 죽엇습니까?

常識科學 白米의知識 (中)

河準寅

胚는 玄米의 腹部의 上端에 잇는 胚乳部에 膠着되여잇는것으로서 粒이 發芽하는 基部인것은 말할것도업다。이 圖面은 곳 胚의 縱橫斷面이다。이 顯微鏡寫眞에 依해서 明瞭해지는바와가티 主要部分은 幼芽 子葉鞘 幼根 根鞘及 吸收層으로부터 되다。子葉鞘에 싸혀잇는 幼芽는 數枚의 本葉으로부터 되며 水分을 만히 包含한 極히 柔한 細胞이다。幼根은 發芽할때에 根毛를 生하며 또한 吸收層은 白色의 網狀의 細胞로서 發芽되는데 必要한 養分을 胚乳部에서 惠通해서 吸收하는것인데 이部分에서 胚가 離脫된다 以上과 가티 糠層과 胚의 解剖에依해서 그組成이 分明해지는것인데 오늘날까지 이方面의 實驗은 比較的 적은모양이엿다。다음으로 糠層及 胚가 現今 가장만히 普及되여잇는 螺旋磨擦型의 精米機에依해서 剝離되여 精白米가되는 狀態를보자 그機械로서 搗精한 圓筒속에 螺旋型의『로-라』가잇서서 그先端에 壓力盖가 부터잇다。이『로-라』에依해서 쌀을 他端으로보내면 그럼때문에 쌀이 壓縮되여서 또 米의表面이 서로 磨擦되고 또 一方 圓筒의 內壁에도 粒面이 接觸되여서 順次로 剝離되여가는것이다 이것이 한번 通過하면『에레베-터-』로 올려가서 循環하기를 約十回假量에 精白米가되는것이다、그래서 처음에는 果皮의 表部가 光澤을 일허버리고 粗조가되여 外乳部의部分에잇는 空隙部에 顯著히 氣泡가 생기면서 漸漸 進行되는데따라 이部分에서 크게 糠이 剝離되여 糊粉層이되면 外部로부터 徐徐히 磨滅되는것이다 米粒의 表面은 前圖에서 表示한바와가티 凹凸해지고 또한 糠層에 厚薄이잇는때문에 糠層의 剝離되는狀態가 그部分에따라서 달너지는것이다 例하면 가장 빠른것은側面과 腹部이고 더듼部分은 背部와 縱溝이다 그때문에 白米의 精白程度를 檢査하는데는 가장 더되게 剝離되는 部分만을 觀察하면 大體얼마나 찌은쌀인가를 짐작할수가 잇는것이다 또 糠層이 剝離되여가는 速度를 全體의 粒을 平均해서 調査해보면 처음에는 比較的 緩調이나 중간쯤은 아주急하고 그다음에는 또 차차로 緩慢해저서 精白을 맛치는 것과가튼것이다 胚의 離脫되는狀態도 糠層의 境遇와 거의 同樣의것인데 될수잇는대로 急激한 摩擦을 避하게되여잇는精米機로 精白을하면 胚의 離脫되는것이 比較的적은것이다 그러나 쌀의 品種 新古米의區別 또는 粒形等이 크게 關係되는것도 看過할수업는것이다 精中의 쌀의 溫度가 摩擦때문에 漸次 上昇하는 것으로서 玄米의 溫度에서 精白米로되는데는 約十五度를 上昇한다고해도 조타。玄米一俵를 精白하는데는 普通때에는 한時間內外를 要한다고하지안는 쌀에充分히 壓力을 加해서 精白할때는 三十分假量이면 足하나 이方法에 依하면 碎米가생기고 搗減의率이 만흔때문에 도리혀 不經濟가되는것이다、要컨데 胚를될수잇는대로 比較的 적게하고 胚를될수잇는대로 만히 保存식히는것은 쌀의 經濟上으로나 榮養上으로나 크게 留意할바이다。

(寫眞은 米胚의 縱斷(上)及橫斷面(下))

獨逸의巨船 今春 巨人飛行船「힌덴부르크」號를 建造한 獨逸서는 다시 歐米兩大陸間의 飛行船에依한 定期航空路完成을 爲해 곳第二船「LZ一三〇」號 飛行船의建造를 開始햇다。同船은 明年가을까지 完成될豫定이라고 寫眞은 組立工事를始作한「LZ一三〇」號

讀者社交室

▲月刊雜誌의月遲分만取扱賣捌하는書店이 東京市中에有하다하오니 貴報社交室을通하야 下敎하여주시오 元山月遲雜誌購讀生

▲生은 今年十九歲男子이온대 現在家庭에서 樂藥研究를하고잇습니다 이方面에趣味잇는분과經驗잇는분은 發藥法書籍과 고은曲譜를내는데必要한點을 社交室로나 左記住所로나下敎해주시면 謝禮를드리겟나이다 市內橋北町四ノ七六 讀者尹漢奎

▲세파트 生後七個月된 牡一頭가 有하온대 今般 形便에 依하와 廉價로 讓渡코저 하오니 希望하시는분은 左記電話番號로 問議하여주시요 本局五五六二番 所在地 京城府新堂町三四七

▲讀者先生님에게問함 癸未年七月十九日은 陽曆으로明治十六年何月何日이오며 壬辰年三月二十一日은陽曆으로 明治二十五年何月何日이오지 社交室을通하야 가르처주십을伏乞 市內 一讀者

▲本人이 純文藝雜誌를經營하자하오니 地方文學青年諸氏는勿論 여러분들의原稿를 만히보내주시기 비옵니다 大邱府鳳山町六ノ三 文藝堂書店內 裵斗勳

▲宗中山에 私設墓地를只今이라도 設定할수잇습니까 그리하야 親族死亡時入山할수잇습니까 一、只今某山을사서 自己의所有로하고私設墓地를定할수잇습니까 一、自己의所有山이면 私設墓地를定치아니하야도入山할수잇습니까 (吉州 一讀者)

▲저는個人으로 多年間바이올린을練習하야 相當히 自信이잇습니다 여러분! 바이올린을 배우고하는분이 게시거든 차저와주시요 個人敎授를하며 出張敎授도하겟습니다 授業料는 實費로提供하겟습니다 (但報酬는 新聞紙로 持參하야주십시요) 市內武橋町五十六 文鋪烈

▲京城府鹿町에 게신讀者에게 當身이早稻田中學講義를 有하다하오니 生의實業講義錄과 交換 又는 廉價로讓渡하시려거든 直接저의住所로 照會하시읍 義州邑南門洞二一〇 裴吉秀

▲李無影氏作少年小說「룸들이」(東亞所載) 一、六、七、十一十四 三十三、四十一四十四、五十九、六十回分을求하오니 讀者여러분中 가지신분이게시거든 보내주십시요 보내주시면 섭섭지안케 謝禮하겟습니다 京城府新井町八三 金相德

▲成俊德氏께! 小生은只今高工에 在學中이오며 늘 苦學으로써繼續하고잇습니다 느저서罪悚하오나 過般의家庭敎師를 下命하시면 健實히最善의努力을 다하며 期待에 마추도록하겟사오니 社交室欄으로 住所下敎하시면 大端고맙겟습니다 市內樂園町一 金若學生

▲讀者中 使用하신오르간放賣하실분이잇거든 左記住所로 品質과價格을 通知하여주시요 慶北金泉郡開寧 金在洪

▲五月卅日夕刊에 貴紙의記載된 第二回印度支部 河內서 歸國하신 金永鎭氏 社稷町住所에番地를 下敎하시옵기 千萬仰望이외다 舟橋町二八三ノ四 姜元錫

▲本人의 가지고잇슨 三醫科大學各府縣病院處方及製劑藥定價二圓新本、和獨醫典定價二圓의二冊과『臨床必携新撰處方定價三圓黑田本多著』一冊과 로서 交換하실분이 게시거든 直接左記所로通信과同時에送冊하시면 即刻上記二冊을 送付하겟습니다 或은 適當한價格으로 買受도하겟습니다 慶南昌原德山醫院 朴炳圭

▲朝鮮日報에서 본바와가티 陰曆 庚申年四月十二日은 陽曆으로(何年、何月、何日、何曜日에、夕) 인지 아르켜주시면 大端히 感謝하겟습니다

▲六月二十日諸君社交室에記載된 府內鐘路朴春緖氏께서 問議하신中央自動車學校長 大月悳光生著最新圖解自動車講義錄을 사려하오나 朴春緖氏宅 鐘路番地를몰라사지못하겟사오니 貴社에서 問議하시와알리여주시옵소서 그러든지貴社로 送金하겟사오니 此書籍을付送하시겟습니까 回答하야주시옵소서 回答이到着되면 곳先金注文하겟나이다 楊平郡邑內 朴寶爾

山에서 물에서 學生通信 募集

山에서 물에서 靑春을 부르는 한업는誘惑! 거긔에는 勇氣가잇고 自由가잇고 生命의 躍動이잇다。이번 夏期休暇에 名山과 大河를 차저드는 學生諸君! 이 勇氣와 自由가 넘치는 水鄕山郭에서 그대들은 무엇을 어드려하는가? 이 한업시 仁慈한 大自然의 恩寵가운데서 어든思索과 感想을 隨筆로 紀行으로 詩歌로 書翰으로 記錄해보내라!

募集規定 (中等以上程度로함)

一、原稿制限 四百字原稿紙二十枚以內
一、募集期限 自七月五日 至七月三十日
一、採擇方法 學藝部考選 (採擇된分은 薄謝進呈)

朝鮮日報社學藝部

連載野談

布衾記 (五五)

申鼎言 作
金熊超 畵

이잔만은사양 (十五)

진합이 사허정에 올른후 김부원수의 손을 잡고

『장군의 용맹은 내 일즉 들은바잇거니와 그 지혜와 마술(馬術)이 또한 이러듯 루철하시니 장군은 과연 용맹과 지혜가 겸비한 명장이신줄을 확실히알겟소. 내 비록 재조는업스나 장군이 버리지 아니하야 우리 두몸이 하나가된다면 어찌 거란쯤을 근심할것이 잇겟소.』

하고 참으로 감복된 태도를보이엿다.

『나는 힘도업고 재조도업는 명색뿐 장수이어니 장군께서 이몸을 두호하사 우리가각 조국의 신민된 도리를 다하게되면 이것은 두나라의 영광이오 이두몸은 평생지긔일것이니 버리지 마시기를 바라옵』

하고 김부원수가 진합의 손을 잡고 섯안으로 들어왓다.

그리고 곳 진합을 대접하는 큰 잔치를 베플엇다.

이때 진합이 그후이 대접하는것을 사례하고 이에 웃는 얼골로써

『장수되자는 술을 마시는데도 그술마시는 령이잇서야 할것이제 주령을 세우고 그령대로 술을 마시되 만일 잔을 사양하거나 먼저 취하는 사람은 그주령으로써 벌을 내리는것이 어떨가요』

이것은 진합이 원악이 술을 잘 먹음으로 김부원수를 술로써 감쪽가티 해하려는 불칙한 생각이엇다.

『장군의 의향은 오직 주흥을 도으시려는것. 백번 마땅하오나 그벌을 당할 사람은 분명히 이몸』

하고 김부원수는 우숨을 띄우며 주령세울것을 쾌히 허락하니 이제은 김부원수도 소스로 미둥이인술 취하여엿다. 이와같이 대작하게 주령을 세우고 술을 먹은것은 몽고인사들의 술먹는것과 로 서로 서로 갈것으로 집어 먹여 주기로하얏다.

김부원수가 돌아오는 술잔을 사양하지아니하고 얼마를 바뎌 마시다가

『이잔만은 사양!』

하고 몇잔간 잔드기를 구지사양하얏다.

『자-, 그러면 주령대로!』

하고 진합은 서가끄부려진 소리로써 주령시행할것을 주장하얏다.

그러나 김부원수는 아직도싱싱한 어조로써

『내가 취해서 사양하는것이아니라 손님대접으로 사양하는거요.』

『손님대접이라니요.』

『내가 이잔을 마시면 장군께서 도마스서야할것. 장군께서 마스시면 내가 또한마서야할것. 이러케 세순배만 더지나면 장군은 필경 대취하야 인사불성이되실것. 그러면 주령시행을 하여야할것, 어찌 주인으로써 손님을 벌할수잇송.』

하고 김부원수는 엄장한 태도를 지으면서 진합을 바라보앗다.

『참으로 장군께서 내 주량을 아신말슴. 나는 과연 취하야 그잔을 바들수업스니 주령대로 벌을 내리시옵.』

하고 진합은 무릅을 꿀코 사례하는양을 보혓다.

『주령은 술을 만히 먹자는와 속이어늘 어찌 놉흔 손님을 벌하리오 그런말슴은 애번당치아니하오.』

하고 김부원수는 진합에게 편히 안기를 공순히 권하얏다.

『장군은 진실노 명장이실뿐아니라 군자신줄노 아옵. 이제 이몸을 아우로 정하야 주시면 모든것을 복종하겟소.』

하고 진합은 쏠쏠히어 김부원수에게 절하고 형제의 의를맷기로하얏다.

그뒤 김부원수와 진합이 힘을 합하야 거란을 향해 밧고 진합이 북으로 돌아갈제 온근히 군사 사십명가량을 외주(義州)에 머므르게하며

『너희는 이곳에서 내가 다시 올때까지 고려말을 힘써 배우라!』

하고 김부원수를 작별하얏다.

진합이가 외주에 군사를 머물게하고 다시 올때까지 고려말을 배우라한것은 분명히 고려를 범하려는 화근의씨를 뿌린것이다.

그러나 진합은 김부원수와 형제의를 매진 외리도 잇거니와 김부원수의 지용이 두려움으로 아직은 생의하기 어려운것을 알고 식하엿다.

김부원수는 이와가티 위태한 국운을 회복한 공이 태산가티 벼슬이 재상에까지 니르럿다.

그러나 고려는 백운선생의말과 가티 안으로도 아즉 어지려 운감이 만한것은 이것이 불행 나라의 운수이어니 김부원수인들 어이하랴.

김부원수는 그뒤 관단한 풍으로 까지 고종왕의 몽진(蒙塵)행차를 배행하야 강화도(江華島)에들어갓다가 과연 어지러워지는 조국을 위하야 눈을 감지못하고 이세상을 떠나니 그일흠은 처려(就礪)요 그충의(忠義)는 죽벼(竹帛)에새이엇다. (이편끗)

演藝娛樂

一隅에殘在한 古俗의神樂춤
中秋節에그復興을準備

요사이에 이르러 由來가참으로 오래인 神樂이라는것을 發見하얏다. 朝鮮서는 神樂이라고부르지만은 그것은 日本內地의 獅子舞와 가튼것으로 獅子대갈이를뒤집어쓰고서 피리며 북에마치어 재미잇고 우습게춤추는 鄕土藝術 그런데 어찌해서 그런지 賤民의 춤이라고 업신녀이기 때문으로 점점업서저버리어 지금 黃海道沙里院과 載寧에 겨우남어 傳하는外 朝鮮어듸를 가든지 자최를차즐길이 업서진것이다. 沙里院의 有志들은 자랑할만한 이古舞踊을 復興하야서 鄕土藝術을 爲하야 大氣焰을 吐코자 當局의 諒解아래 今年舊八月十五日(陽曆으로九月三十日)仲秋佳節을 점치어 神樂의춤을 그대로再現시키고자 이것 저것準備를 進行中이다. 그런데當夜DK에서는 沙里院으로부터 全國中繼을 行하리라고한다. 朝鮮의古藝術舞踊이 電波를 타고 널리紹介되리라고 미리부터 一般의企待를 이루고잇다

映畵界插話
『꼬십』의꼿피는 헐리우-드

『헐리우드』의 『바첼라-구락부』 총각구락부의 명예회원이엇든 『짹·오-키』군 드듸어, 불행히도색시깜하나를 휘어잡엇습니다 색시일홈은『벨타·바-덴』그래서 그는 즉각『헐리·우드』 독신구락부로 부터 제명된 우에회칙에의하야 일금삼백오십불의 벌금을 물고 신랑신부두분이 동부인해서구락부가맹전회원의집을 한집한집인사드리러 다니는 벌을바뎟습니다 그런데이런벌을 밧고도그는 벙글벙글.

×

『스타바』『무-아』『로온』의 트리오로된 유와영화『제시커라안』의한장면에 『나폴레온』횡세가 나온다고야 용한는 진짬마차가 나온다고야 단을 입니다 이마차는 『나폴레온』외에 로시아의알렉산더-일세『나폴레온』삼세 그의왕비『니콜라스이세』『알렉산드리아』녀왕등의 력사상유명한 고귀한분들이 타신일까지잇다합니다 시대는 一八七〇년대의것.

×

『파라마운트』에서는『카-롤·롬버-드』『프레드·맥매레이』총연인『푸린세스·컴스애크로스』란 영화를 연출하는데 그까닭은 주연자인 두사람의 미국인외에 영국인『아리슨·스킨워-스』란 로파, 독일사람인『시그프리-드·루-만』, 일본사람인 구경철(駒井哲)、로시아사람인『밋샤·오-엘』이 캐스트에 드려잇다는것입니다.

×

무성영화때의『스타-』로 또한 무대에나서서 명녀배우이『사라·베르나-르』의상대역을한든『까스톤·그라스』가 최근에『토-키-』로되도라왓습니다 그의최근의출연영화는『宿命의女』『푸린세스·컴시·애코스』와『스코트랜드의메리』『그國旗의미테서』등입니다

×

애들이라 갈작히 자라는게지요? 『애기야자거라』에 처음나와 주여배우인『슈바리에』에게 어린양하든『베이비-·를로이』도 금년에 만네살이되엿지요, 또금년에일곱살인『셸리·템폴』은 아푸로칠년동안의 장긔계약을체결햇습니다 말이칠년이지 칠년후의 템플을 상상해보십시요 열네살! 엇재자미업는것갓지요.

新進스타名鑑

◆짠·피엘·오몬(佛)一九一一年巴里出生。名優 루이 쥬베의 미트로 舞臺에 나섯다가 나중 映畫로 들어갓다。最近名聲이 작구 올라가는 판인데 그主演映畫의 主要한것은『處女의湖水』『한處女地』等

B部

◆프레듸·바솔로뮤(米)一九二四年 三月二十八日 倫敦出生 三歲때부터 舞臺에 섯다。叔母와함께 渡米。『孤兒 따뷔드』役이야기와『안나·카레니나』에 出演하엿다。

C部

◆코라·수·콜린스·(米)위싱톤州出生。本年七歲인데 小兒役으로 주목된GM映畫에 出演。主要한 出演映畫는『남편을숙이기까지』『크리스티나女王』『男性NO.1』『다·옌칠』『안나·카레니나』等

D部

◆올리비아·떠·하빌란드(米와)一九一六年 東京出生 어려서 母親과가티 渡米。出演映畫는『한녀름밤의꿈』『海賊블루드』『부라온의怪投手』等

◆올레아·듯드(米)紐育出生。뮤지칼·콤메듸『후피』『스마일스』等에 出演하얏다가 나중映畫로 나왓다。出演映畫는『雨話의秘密』『沈默의犯罪』『明暗의 두女子』『수수꺼기의賓客』『寶石綠賊』『異人種의手網』等

◆로바트·도나트(英)一九〇五年 만체스타出生。어려서부터 舞臺에 興味를가지고잇섯고 十三歲때에 젬스·바트나로부터 發聲法을 배호고 十八歲에로큐쇼賞을 바덧다。倫敦서舞臺로 돌아다니는동안불라에게 發見되야 映畫로 들어와가지고『헨리八世』『明日의사랑』『巖窟王』『三十九夜』『幽靈은西으로가다』等에 出演。

◆부라이안·돈레뷔(米)舞臺出身의 新進『바바리코스트』『G우맨』等에 出演。

◆딕시·땐바르(米)조지아州出生。폭스社 뮤직칼物에 잘씌리고 잇다가 오브바레스크의『人生은八時四十分으로 부터』等에 出演。

E部

◆에롤、풀린(米)一九〇九年英國出生。學生時代스포스選手로活躍。一九二八年度 올림픽에拳鬪選手로 出場。卒業후거니아島에警官으로就職 그뒤얼마안되어 스쿠나船의 航路를經營。뉴기니아州에서 金山을發掘하다가 그金山을 五萬弗에팔엇스나 오스트랄리아에 한푼업시 다떨엇다。南海映畫製作의 水路引導를 하다가 一九三五年와나社에 入社。두本의映畫에 出演한뒤 一躍『海賊블러드』等에 出演한뒤

演藝消息

『모던朝鮮』誌 創刊號準備中

趣味、娛樂、文藝、映畵、演劇綜合의 尖端的 趣味本位의月刊雜誌『모던朝鮮』을 主幹姜一山外鄭相一 片大鏞 宋潭元等이 發行하는데 創刊八月號가 未久에 나오리라고 事務所는 京城府壽松町七三番地 모던朝鮮社

◆패트리아·에리사∥의 실한오리조차 귀찬케생각되는 더운날도 오른차리고 나서는것이 제일이야。구두 재미업서서 그냥그물처럼 얽어주면용 아이 에리소 그러케 일고나서 놀까요? 부러워하는 동무스타들로 엇지는 안될걸……

스트라익·미·핑크

一年一本의 에듸 칸타의最近作으로 아조마음弱하고 검만흔洋服店의심부름시군이 修養書덕택으로 헷긔운을뽑내어 大遊園地의支配人자리를 어더걸리엇스나 서캐가티 조롱조롱달리는 깽들과 어느때는 勇敢히 또어느때는 벌벌떨어가면서 물리처낸다는 트릭映畫의最高効果를 거두고잇는것.

絢爛한天分의爭覇戰

第2回 全朝鮮音樂懸賞競演會

開催期日 九月下旬　**申請期日** 九月五日까지

曲目

【聲樂】 二曲을 演奏하되 一曲은 本社指定曲을 取하고 一曲은 隨意로함
一、蓮花(女)『슈-만』　一、님은 나의安息(男)『슈벨트』

【피아노】 一、『쏘나타』(F長調)‖第一樂章‖『모짤트』

【바이올린】 一、『콘첼토』(G長調)‖第一樂章‖『비오티』

參加資格 朝鮮男女로하되 聲樂은 滿十五歲以上

申請規定 申請金 貳圓과 伴奏料 壹圓을 申請書와함께 本社庶務部로 提出하되 樂譜는 實費로 提供함 (但 한번 申請한뒤에는 一切 申請金을 返還치아니함)

表彰 入賞된분에게는 本社로부터 콩쿨賞金을 授與함

審査委員 金永煥、洪蘭坡、朴慶浩、桂貞植、蔡東鮮、金元福、鄭勳謨 (無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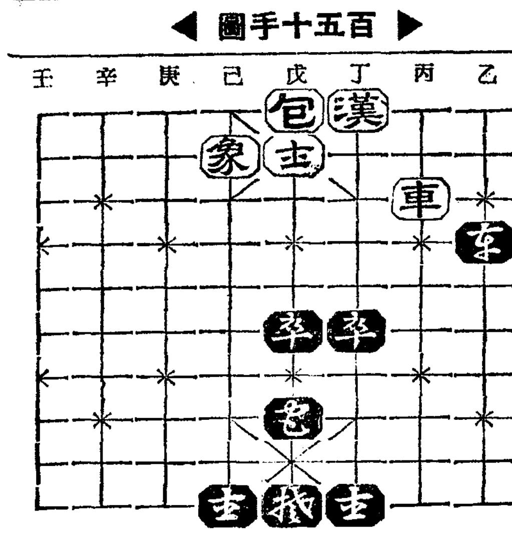
主催 朝鮮日報社

本社主催

將棋名手對局譜 (十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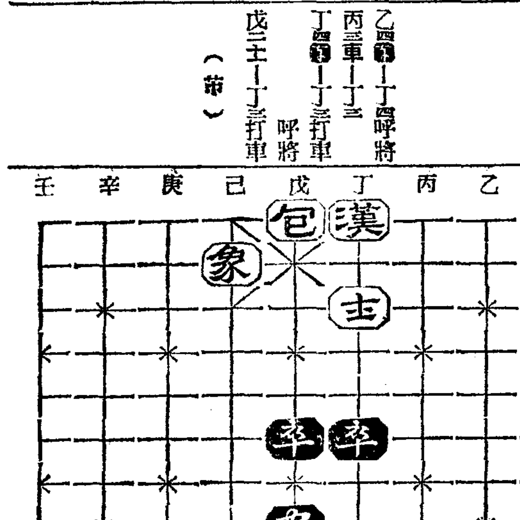
漢 李在鳳　楚先手 全于石

◀百五十手圖▶



◀百六十手圖▶

乙四卒-丁四呼將
丙三車-丁三
丁四卒-丁三打車 呼將
戊二士-丁三打車
(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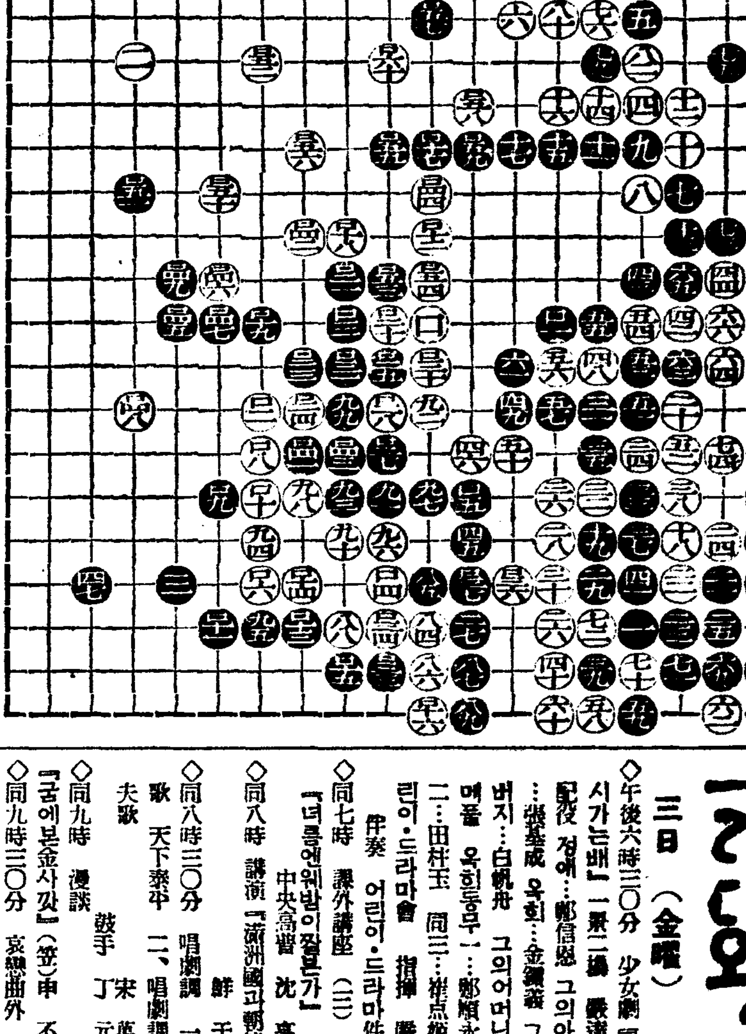


本社主催

圍碁對局譜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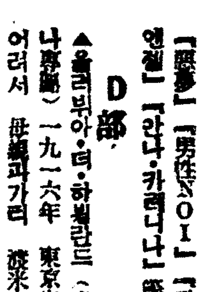
白 丁奎春
黑先 柳鎭河

●一〇一 辰의十
○一〇二 卯의九
●一〇三 卯의十
○一〇四 巳의十二
●一〇五 辰의九
○一〇六 卯의七
●一〇七 巳의七
○一〇八 寅의四
●一〇九 癸의九
○一一〇 壬의九
●一一一 癸의六
○一一二 丑의六
●一一三 壬의三
○一一四 辛의五
●一一五 辛의六
○一一六 癸의四



蔡極文氏評曰 黑이 大陣을 連結하야 迂回出塞하고 壬의三으로 入着하니 十分頹勢가 六七分은 挽回가되엇다 白은 黑連長馬引出을 早速放置하고 壬癸子四五에 修築만立하여시면 委權久功坐而致矣리니 益加齊量이엇다

라디오



◇同九時一〇分(大) 漫談風景 橫山엔다스 杉浦에노스케
…봉두드』의 主役으로 올라갓다。지금은『解決隊의突擊』을 撮影中

三日(金曜)

◇午後六時三〇分 少女劇『꼿업시가는배』一景二場 嚴達鎬作 配役 정애…鄭信恩 그의아버지…張基成 옥희…金鋼姬 그의아버지…白帆舟 그의어머니…田二…田村玉 同三…崔点姬 어메올 옥희동무一…鄭順永 同二…어린이·드라마會 指揮 嚴達鎬 伴奏 어린이·드라마件奏團
◇同七時 課外講座 (三) 『녀름엔웨밤이짤분가』 中央高普 沈亨弼
◇同八時 講演『滿洲國과朝鮮人』 鮮于全
◇同八時三〇分 唱劇調 一、短歌 二、唱劇調 興夫歌 宋萬甲 鼓手 丁元燮
◇同九時 漫談
◇同九時三〇分 哀戀曲外 一、『꿈에본金사깟』(笠)申不出 二、平壤念佛 三、자진念佛 四、興打鈴 五、五峰山歌 六、梁山道 高一心 細笛 姜鶴沬 奚琴 李忠善

第一放送

◇午後六時 (名) 이야기 有光敏三
◇同六時二五分 基礎英語講座 (仙) 藤谷榮
◇同七時三〇分 (東) 講演
◇同八時 (東) 物語 岡田嘉子外
◇同八時五〇分 (東)常磐津 常磐津若太夫外

四日(土曜)

◇午後零時五分 軍樂 野球試合實況
◇同一時二〇分 都市對抗野球朝鮮第二次豫選 大田鐵道-平讓實業 …第一日의勝者 …全大邱
◇同六時三〇分 노래공부 一、수려 二、조이배 三、갱이 朴景嬉
◇同六時五五分 兒童新聞 外寶演兒童數名
◇同七時 時事解說 朝鮮日報 咸尙勳
◇同八時 講演『月蝕에對하야』 梨花女高 韓球表
◇同八時三〇分 流行歌 一、新農夫歌 二、물새야 왜우느냐 三、꼬기배 四、두사람의사랑은 五、님이여잘잇거라 六、빗나는靑春 姜弘植 伴奏 OK管絃團
◇同九時 野談『春香傳』 演 朴秋岡
◇同九時三〇分 楚漢歌外 一、楚漢歌 二、孔明歌 三、齊邊歌 四、山念佛 五、朴淵瀑布 金振鳴

第一放送

◇午前六時三〇分 (東)基礎佛語講座 丸山順太郎
◇同〇時一四分自 ◇同〇時四五分至 米國獨立祭記念日米交換放送
◇同六時 (大)幼兒에게들려줄이야기
◇同七時三〇分 (東)和洋合奏 東洋管絃樂團
◇同七時五〇分 (東)琵琶 長島華
◇同八時〇五分 (東)哥澤 哥澤芝勢以外
◇同八時二〇分 (東)라듸오·코메듸 外 古川綠波

五日(日曜)

◇午後〇時五〇分 古談『白虎感孝』 金錫九
◇同一時二〇分 唱劇調 一、短歌 二、唱劇調 水宮歌 郭雲堂 趙千洪 鼓手
◇同二時 野球試合實況 -京城球場에-都市對抗野球朝鮮第二次豫選(決勝戰)
◇同六時三〇分 노래공부(二) 一、수례 二、조이배 三、갱이 朴景嬉
◇同六時五五分 心田開發講演 明倫學院 安寅植 外 寶況兒童數名
◇同八時 라듸오·드라마『바다까에 사는사람들』 一場-韓相稷作 【配役】南長海…(아버지)…申左峴 山出…(둘째아들)…宋在禽 陸田…(셋째아들)…梁世浩 錦珠…(딸)…白銀姬 鳳女…(漁場主의 딸)…趙志海 崔參奉…(洞里老人)…朴商翊 學洙…(洞里靑年)…李春峰 演出 申左峴 效果 宋籍 劇人會
◇同八時三十分 새라령外 一、새라령 二、六字백이 三、興打令 四、개고리打令 金燦守 愼淑
◇同九時 歌曲 一、羽調西學 二、羽樂 三、界樂 四、界樂 五、編 洪芙蓉 文明仙 金相淳 金永根 金一宇 洋琴 大笒 杖鼓
◇同九時三〇分 (東) 時報
◇同一〇時 朝滿交換放送 -滿洲로부터-

第一放送

◇午後〇時五〇分 (東) 野球試合實況
◇同六時 (東) 合唱 JOAK合唱隊
◇同七時三〇分 (東) 뉴-스演藝
◇同七時五七分 올림픽參加國日獨國際放送
◇同八時 同上獨逸로부터 松平晃 音丸等
◇同八時三〇分 講演
◇同九時五分 (東) 歌謠曲

무지개 特作映畫 待望의朝鮮名畵特別大封切
第六月三十日부터超特別大興行 湖南映畵社超特作珠玉篇 京都PCC提供!
監督…李圭煥氏 製作指揮…李東熙氏 撮影…藤井清 主演…文藝峰 其他올스타-캐스트로
純朝鮮的情緖를背景으로한어떤家庭의血淚史 要할수업는運命에 날과가치冷酷한人生의行狀을 記錄한…홀로의아버지를어대가서 차즈리…래오의밤거리를헤매는그人間이엇지한사람에게救해지랴!!

水標一萬浬 노-만포스타-氏主演 메리가-라이로-氏助演
코롬비아超特作全發聲映畫 란비-드 헤리아氏大作
시여 驚濤夢의甘露酒에陶醉하며滄波萬頃! 一葉舟의飛沫에몸을적사라! 榮光의勝利를相爭하는凉味滿點! 快樂價値百%의大名篇 大超特作全發聲

國際뉴-스
次週封切豫告 하리우드스타-合戰 鉄やくざ
電話光三九五 優美館

光明을일흔사람들 全二幕 金鎭…作 東劇座公演第五週
光明을잃흔地下村의人間들! 그들은그네들의環境에서永遠히버서나지못하엿다! 그러나그들은단지하나의취할것이잇섯스니그들은무엇을취하엿나? 이것은우리들의이야기가되고잇다
出演 卞基鍾、李敏煥、宋海天、河芝滿、徐玉順、金英淑 其他總出演

不具의안해 一幕二場 周峰越…作
한사나히를사고도는두계집의사랑의싸홈! 名譽와富貴를超越한순진한人情과사랑의애처로음!…는것이한살남을할것이며모어렴으로써만이快活한洛山學人……人

貧富의境遇 全一幕
누구나갓치貧困한가운대通情도하고同情도한다 그러나한끝 한者가富할때에는잇는나는것이人間의本性이라하겟다 여기에뜻김흔喜劇은찌어내고얄밉고納得한人間이 나타난다
西大門町 電光3 三五五 東洋劇場

七月一日より七月七日まで 晝夜三回上映 入場料金 五十錢 七十錢
映畫名 上映時間表 ひるの部 夜の部
◀眞夏の夜のキスー 二十・三〇 一・三〇 七・一〇
◀魔術師の第子 二十・〇五 一・五八 七・一九
◀愛の法則 二十・一五 二・五八 七・二八
◀卵あのか神つ秘さ 一・二一 四・五五 八・三五
浪花館

七月一日부터 料金階上三十錢 階下二十錢均一
◇米國마스코로社超特作全發聲連續篇 巨匠알만드·시에파-氏大作 **流線怪盜列車** 最終解決篇八卷上映 旋風兒조-우엔氏決死의主演 샤-레그래이孃助演
◇콜럼비아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모던騎士道** 主演 조-지·라우드氏 監督 데이·카-넷트氏 禁酒法廢에서失業한갱크는무엇을目錄하나? 降鉢한拂奪일까? 美事한人生轉換일까? 이것은血에빗나는갱크에고메데이·메로드라마다
大都映畵社超特作連續篇 時代劇 疾風蝴蝶 快盜綺平次篇 監督…白井戰太郞 主演…近衛十四郞 特別出演…水島道太郞 次週…久遠의戀‖疾風蝴蝶…‖無電非常線
電話本局二三三番 …花劇場

水畓은代作을準備 田作物조차大減收
移秧完了는僅僅四萬餘町步
不可形言의咸南年事

【咸興】 미증유한 장기한발로인하야 함남의 전작 도작할것업시 농작물의 피해가 극히 심하야 흉작을면하기 어렵다는것은 루차 보도하는바어니와 그중의 수전(畓)은 총작부면적륙만일백사십팔정보중에 겨우사만칠천정보밧게는이앙을하지못하고 남은일만사천정보는 벌서실긔(失期)되여 금후에는 암만호우가오드래도 이앙할필요조차업시 페농이되야 대용작물로서 교맥(蕎麥)과대두(大豆)등을 대작하기로되여 목하그종곡을 준비중이라 고한다 그리고 전작물(田)에잇서서는 제일주요한대맥 마령서등이 매개군을통하야 오할내지 이삼할가량식감수를 예상하야 농민들의공황은 이중삼중으로 기퍼절망상태에 빠지고말엇다한다 축농무과에서 조사한바에의하면 다음과갓다

咸州	大麥三割減	馬鈴薯三割減
永興	三割	
文原	稍不良	
安邊	四割	四割
洪原	稍不良	燒畑地尤甚
利原	四割	四割
新興	四割	大豆被害甚

盈德公立農業 實修校開校式

【盈德】 경북영덕군에서 농업실수학교(農業實修校)를 설립코저 후원회를조직하고 이래제반설비를 착착진행중이라함은 긔보하엿거니와 지난이십구일오전십시부터 당지 보통학교강당에서 후원회장 문명과(文明瑎)씨사회하에 영덕공립농업실수학교 개교식을 래빈다수참석과 좌긔각군에서 선발된 륙십명 학생으로 엄숙한중에 거행한바 앵정교장(櫻井)의 훈사와 도지사대리망월시학(望月視學)의 고사며 권군수식사를 비롯하야 각래빈의 축사등 순서를마친후 동오후일시부터 개교연까지 잇섯다고한다

一、各郡選拔된學生數 迎日郡二〇人 盈德郡一四人 靑松郡一四人 英陽郡一〇人 鬱陵島一人
二、校舍敷地 二、五〇〇坪 建築費 農舍二、二九三圓 道場其他六、七八〇圓 計九、〇七三圓
三、實習地 畓一町五反步 田六町二反八畝步 今後增加分 畓九町五反步 田八町五反七畝步 山林七二町步

麟洞飢饉民에 同情米를配給 崔圭隆氏特志

【楊口】 우리강원도양구는 산간벽지의 농촌지방으로 농사나지여서 근근히 살어가는것이 거지업는 사실이다 그러나 작년에추경한 맥작도 한발로 인하야 지금이 수확긔에 잇스나 낫도 들어볼 여지가 업시 고갈되야 그참경은 목불인견이며 개중에는 최근에와서 먹기보다도 굼기를 예사로굴머사는 그가련한그들을 일시적구제라도 될가하야 가세가 그다지 넉넉지도못한 처지에잇는 양구면고대리(楊口面高岱里)에사는 최규목(崔圭睦)씨는 근동에사는긔근민(飢饉民)이십여호에대하야 매호당 백미한말(白米一斗)식분급한 농촌미담이잇슴으로 당지일반사회에서는 씨에대한 칭송이자자하다고한다

移秧에沒頭한今日 作權移動頻頻!
達城郡內에서二日間四十餘件
—今後嚴重取締方針—

【大邱】 근년에드문 소작이동(小作移動)!이앙에 몰두한 요지음에 달성군(達城郡)내에서는 이십구일 삼십일량일간 소작쟁의사건이 사십륙건에 달하엿다다 한다 소작위원인 달성조군수(達城趙郡守)의말을드건대 일반에잇서서 농지령을 전연히무시한 지주가 최근에 못처만해젓다 그럼으로 금년가을부터는 지주와 대리인에게더한층 농지령의 취지를알니게하는동시에 취체를 엄중히 아니하면 소작이동은 더욱격증할것이라한다

貧民戶稅代納 李重鉉氏特志

【醴泉】 경북례천중앙병원장리중현(醴泉中央病院長李重鉉)씨는 지난륙월삼십일 례천면내체납처분을 당할극빈민구십삼인에대한 호세와가옥세 오십삼원륙십전을 대납하엿슴으로 일반의칭송이자자하다고 한다

開城府民熱望의的 重要問題四項
◇…溫泉試堀、普校增設等等
府當局과의一問一答

【開城】 현하 개성부의 발전을위하야 시급을요하는 문제가한두가지아니나 그중에도 일반부민이 열렬히 갈망하는 문제는 온천시굴문제(溫泉試堀)를 비롯하야 시가지확장문제 또한문화적으론 학교증설문제급 경성와전(京電)이전문제등이다 요컨대 이러한 중대문제는 부청당국이 주체가되여잇는만큼 더욱이 이번신부윤 권씨(權氏)는 어떠한 「푸란」을 세워가지고 개성을운전해나갈가? 하고 일반은 당국자의 새로운 방침과계획을알고자하지 오랫섯다 그래서 지난삼일 언론긔관대표 십여명은 당국자를 맨드러 면회하고 동의견을 전출하얏는바 씨는명쾌한어조로 「머못나 개성은정적상태에 잇스니 금후로는 동적상태의신흥도시를 맨드러 면목약여케할것이다」 놉히고 자신잇게 소회를 피력하며 긔자의 뭇는말에다음과가티 회답하얏다

一、記—溫泉試堀問題?……
府—만일 성공만되면 경선계발가는 온천장이될터이니 목적을 달성할때까지 계속시굴해볼작정이다

二、記—「高麗公普」新設問題?
府—來年엔 긔어코 北部方面에 하나 新設하겟다。

三、記—藥專移轉問題?
府—지금失敗로도라갓다할수는업스나 道當局과아즉 교섭되지도안흔문제일뿐더러 학교당국편에 복잡한 문제도잇는만큼 무어라 속단해말할수업스니 확답은보류하오。

四、記—南北線道路改修問題?
府—道當局에 적극적알선하야 來年엔 工事에 着手하도록하겟소、

大邱府內에 染病患者激增

【大邱】 대구부내 전염병은 번창하야간다 륙월말일현재로 대구부내의 전염병환자가 사십명에달하엿는데 지난그믐날부터 초하로날까지 량일간에 장질부사환자가 이곳저곳에서 발생되여 이일통안에판명된 환자만 일곱명이나 되다는데 부내의로그불비로 전염병환자는 악양리에서 치료하는중이라한다 최근에잇서서 갑작이 전염병환자가 늘어가는리유를 듯건대 부내방역이 부족된데에도 리유가잇지만는 사오일을 계속하야 날세가 조흔관계라한다

去勢實効는疑問 九十餘頭가斃死
咸南道의農牛去勢積極獎勵에
一般農民은不平滿滿

【咸興】 축우생사(畜牛生飼)의적극적장려가 도리여 축우의 폐사(斃死)를 초래케하얏다는사실은 이미 보도하얏거니와 이제또 축우(畜牛)를 거세(去勢)하면 발육이라는지 능률이 매우 올라간다는것으로 역시 각농가에대하야 적극적장려하는 한편에 도내에서 약륙백두 가량은 직접 거세(去勢)하얏는바 그결과 그중 구십필두는 순전히거세(去勢)로 말미아마 폐사하엿다고한다 이와가티 최초에는유리하게 만들기위하야 한일이결국 결과에잇서서 폐사하게되고 말므로 이거세장려에대하야 농민들의 비난이 매우놉다고한다

森林令違反者 二個月二百件

【全州】 삼림령(森林令)이생긴이래 치산(治山)의성적은 조와진다하나 이그물코에걸려 희생된농민!매년 헤아릴수업슬만큼 엄청난수자를 계렴하고잇다 지난오월하순부터 두달동안에 완주군내에만 약일백륙십여명의 위반자를 완주군삼림계에서 적발하야 범죄의경중에따라 증계、혹은벌금처분을 나리엿다는데 전긔두달동안 근이백명의 범죄자를내인 동긔는 농번긔를 압두고 록비채취(綠肥採取)로사용코저 산에가서 「갈입」을베이다가 들킨것이라고한다

長霖繼續으로 麥作收穫不能

【泗川】 경남사천지방에는 지난륙월이십일부터 동이십사일까지큰비가 나린후 겨우 이틀동안을 청명하드니 이십오일부터 나리기시작한비가 금칠월이일까지 련일계속하야 일주일간이나 떠붓는중인데 수답、전답을합하야서 이앙(移秧)은 순조롭게 진행되나 이반면에 일년간이나 빼빼지게 지어노흔 보리(麥)는 지리한장림으로 말미암아 그냥밧판에잇는것이나 혹은 묵보리를 타맥한 … 그러치 안어도 금년의 맥작은 례년에비하야 이할이상의 감수를 보게되엿는데 설상가상으로 다지은곡식을 모조리 썩어버리게되여 일반농민은전전긍긍하는중이다

三橋川水利組合 瀆職理事等送局
龍岩署서取調마치고

【新義州】 룡천군양하면(龍川郡楊下面)삼교천 수리조합(三橋川水利組合)리사(理事)고교약삼랑(高橋若三郞)(五)등 긔사(技師)아무삼랑(我茂三郞)(三)등 고원량성찬(梁成燦)(三)등 세명에대한 부정사건은 행정처분으로 일단락을 지엇든바 다시룡암포(龍岩浦)서에서 활동을개시하야 그간엄중취조를 마치고지난일일 신의주검사국(檢事局)으로송치하엿다 한다

民意를無視하고 刑務所를再增築
町發展과兒童教育上大問題라고
移轉運動이再燃?

【大邱】 대구부내삼립정(三笠町)에 큰면적을 차지하고잇는 대구형무소(大邱刑務所)는 오래전부터 부민측에서 매년이 이전촉진운동을 거듭하야 왓슴에도 불고하고 확장공사를 의연계획중이라한다 대구부는 질피량으로 대확장하는과정에 잇슴으로 최근에잇서서 큰면적을 차지하고잇는 건축물은 도시발전상 만흔지장을 주게되엿다 이중에하나인 대구형무소는 대구의 한복판에 큰면적을 차지하고 잇슴으로 도시발전상지장은물론이고 아동교육상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아니하야 삼립정회(三笠町會)를 비롯하야 각방면에서 이전촉진운동을 개시하고 잇섯다 그러나 대구형무소에서는 부민의여론을 무시하고 근일에는 재차확장공사를 계획하고잇다한다 이와가티 형무소가 민의를 무시하고 확장공사를 하고저하는것은 민의에대한 무시적행동이라하야 각방면에 만흔 충동을주게되여 재삼 맹렬한이전운동이 재연되리라는데 일반은 매우주목한다고한다

第一回全朝鮮男女 自轉車競技盛況
本報群山支局主催

【群山】 본보군산지국외 삼지국련합주최인 제일회전조선남녀자전거경기대회는 우천관계로 이일간을 연긔하야 지난이십구일오후일시부터 군산공설운동장에서 대회장 전의용(全義鎔)씨의 개회사 급 사긔게양식(社旗揭揚式)으로 경기는 시작되얏다 참가선수는 차륜계(車輪界)의왕이라고일컷는 경성의 엄복동(嚴福童)을 비롯하야 북으로는 신의주(新義州)、순천(順川)、평양(平壤) 남으로는 목포(木浦)、광주(光州)、강진(康津)등지로부터 운집하기팔십여명 경기가시작될때마다 각선수들 의긔선(機先)을 다투워 내달리는양이란 그야말로 철제사진(鐵蹄沙塵) 그대로서 일만오천여의일반관중을 도취하고 경기는 량일에긍하야 무사히마친바동대회의입상자는다음과갓다한다

◇第一日
—記錄賞—
一等賞 李潤白(京城培材)
二等賞 金雲鶴(平壤)
三等賞 張基奭(鳥致院)

◇第二日
—混合決勝—
一着 方小者(潭陽)
二着 梁基順(群山)
三着 吳東寶(群山)
—三流決勝—
一着 文昌鎬(裡里)
二着 金鎬男(裡里)
三着 李圭男(光州)
—二流決勝—
一着 金鍾源(京城)
二着 申相玉(群山)
三着 金台煥(京城)
—一流決勝—
一着 金銀璟(新義州)
二着 李潤白(京城培材)
三着 張基奭(鳥致院)
—聯合—
一着 李潤白(京城培材)
二着 張基奭(鳥致院)
三着 金台煥(京城)
—女子決勝—
一着 鄭英渉(大田)
一着 朴吉順(金堤)

蓮湖住民의生命線 船着地個人貸附
關係住民은生活上威脅이라고
道土木課에連署陳情

【咸興】 련서고라는직을 련용하야 어촌에서 유일한 선착지(船着地)인 동시에 주택지로되여잇는 국유지(國有地)대부(貸付)를 마련 이십여어민들에게 퇴거를명령하므로 궁지에빠진 어민들이 련서하야 함남도토목과에탄원한 사건이잇다 북청군신포면련호리(新浦面蓮湖里)에사는 강석훈(姜錫勳)외신명은련서로인일 함남도토목과에 진정서를 제출하야왓는데 그내용을보면 련호리(蓮湖里)라는곳은전부어업으로 생계를 이어오는순전한 어촌인데 이촌에서 유일한 선착지(船着地)로 되여잇는해안의 오백륙번지의 토지는 본래부터 강씨(姜氏)문중의 소유토지라고 전하여와서 이제까지는 아무말업시 집도짓고 또한어선이 붓기도하야 왓다고한다 그런데 금년봄에이르러 동면서긔인 평전(平田)모라는사람이 이땅가운데서도 그중해변의토지칠백여평은 본래국유지(國有地)로서내가 도당국에 대부원을제출하야 대부될것이 확실하니너이들은 미리부터 내토지에서부터 물러가라고하는말을 하므로 이에 처음이토지가 국유지인것을 알게되야 동오월십일부로 동리 대표 강석훈(姜錫勳)이의명의로 가장 연고자가되는 우리들에게 대부하야달라고 면사무소에 출원하얏다 그리하야 이제는 완전히 선착을 빼앗기고 또한 그땅우에 집을 짓고잇는 우리들은 매일 전과 평전이라는사람헌테 핍박을 당하고 잇다는것인데 이에 대하야 도토목과에서도 다시금 엄밀히 사실조사를하야 선처하겟다고 말한다

空前의大收穫

【求禮】 전후의관계와 양잠기술의발전으로구례지방의 금년춘견성적은 매우양호하야 총생산액일만이천관에 그칠할가량인 구천일백이십관이 공동판매케되엿는데 그금액은 삼만팔백십원이라하며 품질이 극히우량하야 약구할가량이 전부특등품에 합격되엿는데 일즉이 구례양잠사상에서 보지못하든조유의 성적임으로 전남도내에서도 제일위에간다고한다 군내양잠호수 삼천호에 당시일원전도의 수입으로 양잠가들은 적이 희열의비츨 띄우고 잇다고한다

地方人事

▲野本喜作氏(義州副邑長) 三橋川水利組合理事轉勤人事次 本報義州支局來訪

寶城
南朝鮮個人庭球大會
▲時日 七月五日
▲場所 寶城郡廳코-트
◇主催 寶城體育會
◇後援 朝鮮日報社寶城支局

愛慾의彼岸 【41】
李光洙 作
金康穆 畵

착착 비가 떠 퍼붓기를 시작한다。 바람ㅅ결에 몰린 빗발이 창유리에 부딧는 소리가 들렷다。 그러한 소리들의 틈틈이 문임의 부드러운 숨ㅅ소리가 들렷다。

김장로는 얼마나 서잇섯는지 모른다。『가자』『잠간만 더』하는생각이 오락가락 하면서 눈을크게 떠서 문임의 누은 모양을 바라보고 잇섯다。『아모때에도 첫번 한번은 당해야할창피─』이러케도 생각해보고『굴은것이 이것이 무슨 꼴이구?』하고 자책도 해보앗다。그러나『이조흔 긔회를』하는 생각이 모든다른 생각을 눌럿다。

『무어。지옥이 잇나? 사람이란 죽어지면 고만인것을』하고 마음ㅅ속에 일어나는 양심의 부르지짐을 비웃으려 하엿다。

『잠시라도 어든 쾌락만이 오직 내것이라고 할만한 유일한 것이다。』

이러케 생각할 때에 김장로는 제일생이 체면이니 양심이니 하는 동안에 다 저녁때가 되어버렷다는 한탄이 일어낫다。얼마 아니남은 인생의 동안이라 하면 그것이 무척 아깝고 소중하엿다。

『밤은 지금 한창 재미잇게사는데』

하고 명예도 존경도 사회적지위도 다일허버리고 젊은 첩을 두셋이나 어더가지고 향락생활을 하고잇는 박이 부러웟다。벌서부터 그것을 단행한 박은 김장로 자긔보다는 영웅인듯하엿다。

『그 놈의 장로라는 지위가』

하고 김장로는 한숨을 쉬엿다。

『그깐놈의거 다 집어 팽개를 처버리면 고만이지。내 재산은 잇것다。』

김장로는 이러케 생각한다。

근래에 와서 김장로는 가면을 벗어버린 제 면목을 차차 분명하게 보게되엇다。처음에는 그가면 벗은 제 진면목이 무섭기도 하고 보기실키도 하엿지마는 차차、그것이 도로혀 감분한맛조차 깨닷게되엇다。그래도、수십년 쓰고온 가면을 딱 벗어버리기에도 아까운 구석、어려운 구석업시 아니하여서 팽개를 치라던 가면을 다시 쓰고 다시 쓰고 하엿다。

『갓지아니한 그놈의 양심』때문에 인생의 취할 쾌락을 못취한 과거가 무한히 아까웟다。세인 터럭、비춤 일흔 피부、얼마나 김장로에게 아까운것이냐。

『올때가 느저간다。재오치는 저바람ㅅ소리와 비ㅅ소리는 올때는저갑다고 재촉하는 소리가 아니냐』

김장로의 마음에는 점점 풍랑이 일기를 시작하엿다。청춘의 열정을 멀혀버린 김장로의 마음은 늙고 병든 말모양으로 날뛰기를 질겨하진아니엿다。김장로의 또 하나 잇는 마음이 소낙비가티 이늙고 병든 말을챗직질 하지아니하면 아니 되엇다。

『머리가 허연것이。머리가 허연것이』

하는 어듸서 오는지 모르는 소리에 김장로는 귀를 꽉 감으면서、최후의 용긔를 내어서 문임의 자는 겨테 안젓다。

『악아。문임아。』

하면서 김장로는 손으로 문임의 부드러운 빰을 쓸엇다。

문임은 깜짝 놀라 고개를 번적 들면서、

『누구야?』

하고 소리를 질럿다。

『내다、내야』

하고、김장로는 무료한드시 뒤로 물러안젓다。

문임은 벌떡 일어나서 이불로 몸을 폭폭 싸면서、한참은 말문이 막혓다가、

『아자씨 웬 일이세요?』

『응。용서해다고。내가 미첫다』

하고 김장로는 고개를 숙여버린다。실로 창피한 꼴이라고 생각한것이다。

『아자씨』

하고 문임은 눈을 크게 떠서 어두운속에 귀신 가티 안즌、자리요입은 김장로의모양을 물끄럼히 보앗다。그것이 김장로인줄 알엇스나、안뒤에는 문임은 무서움 불쾌한 감정이 북바침을 참지못하엿다。

『아자씨 가서서 주무세요』

하고 문임은 떨리지마는 힘잇는 소리로 명령하드시 웨첫다。

殺虫王
猪印의偉効
日本産業最高賞緑綬褒章御下賜
猪印 のみとり粉 (노미도리)

C—1
安住かとり線香本舗
株式會社 安住大藥房 大阪大仁

七月三日封切(五日間)
每日三回{午前十時四〇分 午後一時半六時半}
但二回興行中에限하야無解說映寫
◆코럼비아社超特作映畵 名匠프랑크캐프라監督
게리·쿠-파·主演 쪼지빤그롭트·진아서共演
오페라햇 (Mr. Deeds Goes to town)
都會人及都會文明에더저논痛烈深刻한諷刺、名컴비네숀이도다시비저낸光輝잇는屈指의名作!!아름다운人生의感情과그洞察은古今에獨步!!
◆코럼비아社超特作映畵 米國레뷰界의巨星하리릿치맨主演 빅터셀텡카監督
뮤직·고-라운드 (Music Goes Round)
아메리카全土를風靡하는流行歌의豪華世界! 陶醉와幻惑、潑剌한리즘 파다시리즘에 그대는三嘆不己하리라
◆코럼비아社超特作天然色映畵
漫畵 (1)닭싸움 (2)옛날이야기行進曲
◆東日大每國際뉴-스四篇
次週豫告 愛國者、로맨스乾盃 노래하자이밤을、戀歌、噫初戀、人形의母、嬌粧의밤、페로니카의花束
映畵殿堂全鮮第一 團成社

當る三日特別大公開
初夏の銀幕に爽爽と君臨する、七月第一週諸彦に捧ぐる待望の名畵鑑賞週間!!
毎日晝夜三回(特別興行なれどとは料金は普通)
午前十一時二十分(第一回) 午後二時二十分(第二回) 午後六時五十分(夜之部)
新興キネマ東京撮影所超特作
眞夜中の酒場
原作、脚色 北村小松 潤色 陶山密 監督 青山三郎
オール、トーキー 立松晃・霧立のぼる主演
原作ゴルドン・モリス
フォックス・日本版 監督ジェームス・ティンリング
コブラ・タンゴ
ワーナー・バクスター ケティイ・ガリアン 主演
新興キネマ京都時代劇部特作
桃色武勇傳(サウンド)
原作 巽 龍吉 監督 山內英三 撮影 川崎常次郞
千代田勝太郞入社一回主演 田村邦男・毛利峰子・泉清子・甲斐世津子助演
永樂町 電三〇三番 中央館

先驅의責罰

如何한物件을勿論하고 좀더 低廉한 材料로써 模造하야 近似한 名稱과 類似한 包裝으로 廣告와 宣傳을 利用하야 民衆을 欺瞞하며 廉價로 販賣할수 잇다는 말이잇슴니다。一般民衆이 黑白을 가리지 못하고 模造品을 非難하는 同時에 때로는 眞品까지 非難하는 일이잇스니 이것이 先驅者로써 밧는 責罰입니다。

近日 各處에서 네오톤 토닉을模造하는 事實이 잇슴니다。이模倣을 試한다는 事實만이 벌서 네오톤 토닉 이얼마나한 特效藥인가 얼마나한 公衆의 信任을 獨占하고 잇는가하는 事實을 雄辯으로 證明하는것이아닙니까? 이信任은 全國多數의 病院과 醫師여러分의 多年間試驗한 結果를보아 一般에게 推奬함으로써 獲得한바입니다。

네오톤 토닉은 醫師各位께서 良好하다고 認證하신 正確하고 숨김업는 有効成分을 含有하엿스며 下記 諸病에 特効가잇는 强壯劑입니다。

一般虛 弱肺結核 神經衰弱 貧症病及萎黃病 食慾不振 榮養障碍
咳嗽 傳染病經過後 精神沈鬱狀態 脈膊不整 스포-츠 練習前後

토닉(補劑)이란 名稱을가진 强壯劑를 사실때에 버드나무표인가 네오톤 토닉이라고 씨여잇는가 注意하여보십시요 本商票와 藥名은 登錄된것임으로 商法的保護를 밧는것이니 모든 模造品은 當然히 法的處分에 訴할것입니다

네오톤 토닉 發賣元 柳韓洋行
京城・上海・大連

朝鮮內金融體系

朝鮮內銀行券發行權 撤收問題는曾往頻傳

❶……申泰瑚

朝鮮內金融機關에있어서 中樞的地位에 잇고 더구나 特別法規에依하야 設立된 朝鮮의 中央銀行인 朝鮮銀行은 最近에 이르러 朝鮮內에잇서 獨占的銀行券發行權을 大藏省으로부터 撤收케될 機運이 잇슴을 傳하며 따라서 朝鮮에 잇서 中央銀行이란 技能을 일허버리고 一個의 普通銀行으로 轉落케 될 運命에 잇다 한다 그러므로 이 形勢의 推移如何에 따러서 朝鮮內 金融體系는 一大變革을 보지안흘수 업게될것으로 이에 對하야 만흔 關心을 갓게되는 그러므로 朝鮮銀行의 銀行券發行權의 撤收問題를 檢討하는 同時에 將次 朝鮮內 金融體系는 어떠한 分解를 보일것인가함을 展望코자 한다。

×

오늘에잇서 朝鮮銀行의 銀行券發行權撤收問題는 어떠한것이나고함에 對하야 먼저 朝鮮銀行法의 第廿一、廿二條內容을 보면 다음과 가튼 項目이 잇다。

▲朝鮮銀行은 銀行券을 發行함을 得함 (以下省略)

▲朝鮮銀行의 發行하는 銀行券은 朝鮮總督의 管轄地域內에서 無制限으로 通用함

이와가티 朝鮮銀行에 限하야 通用되는 銀行券의 朝鮮內에서 通用되는 銀行券은 朝鮮銀行에서만 發行權限을 갓게하엿다 그러므로 朝鮮銀行은 日本內地의日銀과가티 朝鮮에잇서는 一般銀行에對한 中央銀行이란 上位에 잇게되엿다 그러고 國庫金의 出納及國債事務取扱을 業務로하게되엇슴 特殊銀行이라고 부른다 이것을 다시말하면 朝鮮銀行은 銀行券發行權의 技能을 獨占하고 잇스므로 朝鮮內金融을 調節 또 指導하는 中央銀行의 地位에 잇게되는것이다 그러데 만약에 이 技能이 업서진다고 하면 朝鮮銀行은 朝鮮에 잇서 中央銀行이란 意義가 自然的消滅을 보게될것은 當然한結果이다 이點에 잇서 오늘의 所傳과가티 果然 朝鮮銀行으로서 그銀行券發行權을 大藏省에서 撤收하야 日銀으로 集中케할 境遇에는 朝鮮銀行은 朝鮮內金融界의支配權은 銀行을 떠나고 따러서 日銀의 支配를 밧게될것은 다시 贅言할餘地도 업다。

×

그러면 朝鮮銀行의銀行券發行權撤收는 果然實現化할運命에잇는가 이것을 다시 말하면 大藏省에서 朝鮮銀行의銀行券發行權을 撤收치안흐면 안될事情이 잇는가 또는 가령

잇다고하면 그것은 무엇이가 그러고 이것은 오늘에잇서 새로히 생긴問題이가 함이 첫재로 究明치안흘수업는點이다 그러나 朝鮮券發行權의撤收 則銀行券發行權集中의統一問題는 日本內地에잇서 이미 論議되어온지가 어제게 오늘의일이아니라 相當한 긴歲月을거처오면서 頻頻히 擡頭하엿든것으로 이것은 大體三期로 난와서 말할수가 잇다

(一)明治四十四年=日韓合倂後 朝鮮의中央銀行인 韓國銀行券의 發行權을 廢止하는同時에 바로 朝鮮內에도 日本銀行券을 通用케하자는 主張이 잇섯다 그러나 結局은 새로히 朝鮮銀行을 創設하고 이곳으로하여금 朝鮮內通用의銀行券을 發行할權限을 附與하엿다

(二)昭和九年末=高橋藏相이 朝鮮銀行、臺灣銀行의 銀行券發行權을 撤收하고 그代에 日銀券을 兩地에 通用케할必要와 不遠한將來에 그實現을 보게될것을 言明하엿다

(三)昭和十一年=馬場財政의 金融統制의 積極化를 따러서 다시 朝鮮銀行券發行權에對한撤收論이 有力化를보게된點이다

×

이처럼 朝銀券發行權撤收의必要論은 때때로 傳하여왓다 그런데 무슨까닭으로 二十餘年間 朝銀券發行權이 繼續되는동안 그撤收論은 實現되지못하고 오늘에 이르럿는가 함이 다시 도리켜보지안흘수 업게된다 即

(一) 日淸戰爭、日露戰爭의 結果 臺灣과 朝鮮이 日本의 領土와 朝鮮、臺灣의 經濟가 日本經濟圈內에 잇게되고 따러 日本의 中央銀行인 日銀券의通用範圍도 朝鮮、臺灣으로 擴大케될것이라는 主張이 잇섯다 그러나 當時에잇서 兩地에는 곳 日銀券을 通用케하기어려운 經濟事情이 잇서 兩銀行에 銀行券發行權을 特別法으로 各各附與케되엇든것이다 即

(가)兩地의經濟事情이 日本과 相當한 懸隔이 顯著한點

(나)兩地의資源開發로 産業資金을 供給할必要가잇는點

(다)朝銀은 南滿과의 貿易金融을 取扱케하기爲하야 臺灣銀行은 中國南部와의 貿易金融을 取扱케하기爲하야 特殊銀行券發行權이잇슴을 設立케하고 만것이다。 그當時의實情이엇다。 (鮮銀은 朝鮮銀行券) =(續)=

今日財界(三日)

◆米 (單位錢)

	今日止	比前日
仁川期米 先限	三一四〇	三九低
大阪期米 先限	三三五五	四八低
㊁三等米 一石	三一六〇	不變
京城一等白米百키로	一三三〇	不變
正租(仁川)一等	九錢六厘五	
一斤價三等	九錢四厘五	

◆市中金銀價

	一匁賣	一匁買
金	十三圓十錢	十三圓五錢
銀	十九錢〇厘	十八錢〇厘

◆株 (單位錢)

	今日止	比前日
朝新	三三〇〇	四〇低
東新	一二六八〇	八〇低
日産	七一一〇	不變

◆商品 (先限單位錢)

	今日止	比前日
大阪綿絲	一九九八〇	七〇低
大阪棉花	三〇七〇	一五低
大阪人絹	八九七〇	一〇低
大阪砂糖	三一三〇	四低
고무FAQ	五五錢五〇	五厘高

朝銀存廢問題 議論時代를未脫

政策問題이므로理論豫測不許 具體的實現은要時日

滿洲의 朝鮮銀行券全面的撤收에 伴한 朝銀自體의 善後措置에對하야서는 目下 東京에서 大藏省、日銀其他關係方面과 協議코잇는데 大藏省方面의 意向도아즉確實한方針을決定한것이아니오 盛傳하는 諸種의 觀測도 要컨대根據가업는 一種의 議論程度에 不過하다 同問題는政府의 重要國策이라고도할政策問題임으로純理論的 推測은 不許이오 政策의 具體的實現에는 相當한時日을要할것으로보인다 從하야松原朝銀副總裁의 渡東도 同問題에 對하야서는 急速한解決을 期할것이아니오 朝銀으로서의 態度를 一應 關係方面에 披瀝하면 歸任케될모양이라한다

銀行事務的協議

部內若干移動일듯 ……林財務局長談

松原君의 渡東으로 云云하는者는金融機構改革問題를 云爲하는모양이나 總督府에는 如斯한問題에 就하야서는 大藏省及 朝鮮銀行으로부터 何等報告도受치안햇다 滿洲問題의 折衝을말할지라도加藤總裁가 東京에잇슴으로 格別히 副總裁渡東을 必要로하지안흘것으로 朝鮮內의 事務的協議나 或은部內의若干移動이라던가의 內部的協議가아닌가한다 憶測은 財界에實質的打擊을 及하는것이아니면 無關하나 그러치안는限 자미업는일이다

各移出港 在米減少

六月末總數量

朝鮮各主要港의 六月末日現在在米高는 百三十二萬九千五百二十一石(政府米를除함)으로 前年同期에比하야 二十一萬三千七百六十八石增加前月에比하야 四十一萬四千九百五十七石減少이엇다 (單位石)

日本內地米	三、五八七
正租	二七六、一一五
玄米	九一三、六七三
白米	三三、六二四
臺灣米	四、五二一

各港別은如左하다

港	日本內地米	正租	玄米	白米	臺灣米	計
▲釜山	五四〇	三九、九五一	一七二、六二三	九、〇二一	一四〇	二二二、二七四
▲馬山		一〇、二七〇	一五、一九〇	三、八八〇		二九、三四〇
▲麗水		五、六四八	一〇、〇四二	一、〇三三		一六、七二三
▲木浦	二九五	一八、七九一	一六六、七二〇	[illegible]八五		
▲群山	一五三	一四、八五六	二〇二、〇一〇	一六、七二三		[illegible]
▲江景		一八、四九八	二〇〇			[illegible]
▲仁川	一、五九九	一〇六、三〇一	二二六、九五二	一七二		[illegible]
▲鎭南浦		七四、七九四	一三九、六二〇	一二一、一九二		[illegible]
▲元山		三、三一〇	三、〇一九	一、一二〇		七、四五九

米倉在米數量

米倉會社의 一日現在在庫高는 九十九萬千九百七十八石으로 百萬石臺를 割하야 前月보다 八萬九千百十五石減少이다

釜山	一八九、一三六
馬山	四三、三三九
麗水	三三、八一七
木浦	一一六、四九六
群山	一九三、四九二
江景	一八、四〇一
仁川	三九九、四九三
鎭南浦	一五〇、七九五
元山	三、〇一〇

麥酒用의大麥

朝鮮內栽培開始

麥酒原料의 朝鮮內自給은 머지안어 實現되고 目下北朝鮮에서 着着試栽中인데 原料大麥의 自給도 兩麥酒會社의 要望이잇서 今年度부터 本格的으로 釀造用大麥의 栽培를 行키로되어 二日午後總督府에서 朝鮮麥酒、昭和기린 兩社、總督府山本技師及 農務課長會議 列席의 各道技術者等이 會同하야協議한結果 좋은메로種、朝麥選出大麥의 二種으로 慶南及全南에서 栽培키로決定하고 肥料、種子、栽培管理等은 兩會社에서 指導키로 되엇다한다

銀坊主、多摩錦格上

朝鮮取引所 米豆部委員會에서 三日午後開催하고 四日의 全朝鮮取引所聯合會의 格付協議에對한 協議를 하얏는바 新格付에對한 것은 銀坊主、多摩錦의格上을要望할터이나 銀坊主의格上은異議업는模樣이오 多摩錦의格上은相當히 議論이잇스리라 한다

肥料低資

增額을要求

肥料資金의 需要는 近年施肥量의增大에伴하야 十年度에는二千萬圓의 産米增殖低資外에 二百萬圓의 短期融通을 밧고銀行에서自己資金三低資二의 比例로서 貸付한바 今年은 需資增大를豫想하야 財務、農林兩當局間 協議한뒤 大藏省預金部와 折衝키로되엇다고

朝鮮都邑擔稅力

各稅務局調査를決定 ◇……增稅의基本으로

總督府財務局에서는 各稅務監督局을通하야 全朝鮮各都邑에亘하야 擔稅力調査를施行키로 決定하얏다 同調査費는이미 今年度豫算에計上되엇는데 右는今後에行할增稅와 稅制整理의 基本이되리라하야 注目된다고한다

取引停止

(六月三十日)▲海陸物産果物商 京城府東大門市場 李華植商店▲穀肥 京城府南大門通二丁目共益[illegible]南榮商會 李

朝鮮銀行預金高 三億圓臺를突破

貸出도四億圓以上

朝鮮銀行上期業績은 各支店으로부터의 報告가 모이지안허 期末計數는 不明이나 預金은三億圓을 突破하야 三億三千萬圓으로 膨脹되어 前期末의 二億九千萬圓보다 四千萬圓餘의 激增을示한 一方貸出도 四億二千萬圓으로 이것도 前期末에比하면 五十萬圓의 激增이다 右와如히 預金貸出의計數는 顯著히 增大되엇스나 一方低金利其他의 環境事情으로보아 收益狀態는 大體前期와大差가업시 四百五十萬圓程度로서 諸銷却에 充하고 公表利益은前期同樣九十二萬圓程度를 計上할터이며 配當은 四分据置로內定하얏다

經濟界消息

◯三井物産京城支店長小川彌太郎氏는 三井物産本店發令의異動에依하야 本店秘書課長으로 榮轉키로決定하얏다 後任은靑島支店長大塚俊雄氏로決定하얏다고

◯朝鮮製氷專務木村氏決定=朝鮮製氷會社專務에는 京城鐘路署長이든 木村與總吉氏가 就任하고 庶務課長에는 元仁川支店長 熊崎氏가 就任키로決定

主榮▲京城府明治町二丁目五六番地 日野辰次郎▲京城府曾光町一七五番地 金信榮▲京城府西四軒町一五番地鎌田文吉▲京城府光熙町 趙遠增▲京城府鍾路四丁目一番地 民井彌吉

經濟寸鐵

◯京城商工協會 十餘年 젓방사리에 전저회개 따서 會館新築中

◯個人邸宅발게 안되는 米滿萬圓金이 업서 分錢을 求한다고

◯幾千圓式 내노을 篤志者가 京城에 엄단말가

◯鐘路基靑가튼것은 外國人의 單獨寄附로 建築된것이 아니냐

◯아모리 貧弱한 朝鮮人商界지만 요리케 義捐心이 업슬까

商況(三日)

株式 東新漸落 不勢

前場區區

今前場은 日産의續騰好勢이 七十二圓七十錢에 解禁以外는 모다 保合狀이엇스나 即時後引에 出하야 東新十錢高인 百二十七圓八十錢、日産九十錢高인 七十二圓丁 朝新三十錢低인 三十二圓十錢、拓新二十一圓八十錢에 各大引 朝取七十六圓丁 鐘新百五十七圓三十錢 大新七十圓二十錢 北紙二十四圓이 잇섯다

後場漸落

後場은 東新이 百二十六圓九十錢에 漸落되고 其他도 追伴不勢이엇스니 即朝新三十二圓丁、鐘新百五十七圓丁、大新六十九圓八十錢、日産七十一圓十錢 日産新二十一圓四十錢、拓新二十二圓丁에 各大引

日産續騰好勢

日産은七十二圓台로 續騰되어好勢인바 日産의資産은 持株인데 모다拂込額으로써 評價되여 日鐵 日立等은 拂込倍額의市勢를維持하고 內容的으로 이에異論을가지는者업다 또市場市勢가업는 日本食品이나 共同漁業도 그內容에 疑點이업서 日産의實價內容은 非常히豊富하며 또收支도配當收入이 充分히一割配當을維持할수잇서 株價七十圓以下는 賣餘地가엽섯던것이다 昨日七十圓復活의飛調는 實치못할것을 賣하야온反動이라할것으로 一部에서傳하는 日産解散이 實現된다 뜨레도 解散價値는 百十圓가량이라하며 日産百圓期待도 그리無謀한것이 아니라겟다

東新依然悲觀

東新一本에 集中賣叩되어 難株들의 反撥도不拘코 獨步不勢가 繼續될뿐으로昨日의 百二十六圓臺도 底인지아닌지 低迷一貫이라갈피를 잡을수업고 東京地場 總弱氣로언제나 眞正한 底入이잇슬지 모르는 形勢인바 一部强氣는말하되 增稅만決定되면 惡材出盡으로보아 戒嚴令 解除로 人氣明朗化하겟고 東新、鐘株가 步調를 一致하야 大轉換되리라밀이잇기는하나 이런側面은 거의 通用되지안코 依然悲觀의域을不脫코잇다

朝新의將來性

朝取新舊는 期待好盛과 朝取의將來性을 期待하고 一派의買進으로獨步高를 演하야 昨後場朝取七十六圓下 朝新三十二圓六十錢의高價로 暴騰되뮈 今前場은一息이엇는데 三日現在朝新의取組內容은 如左하다

賣		買	
小林	[illegible]	金益	[illegible]
丸光	[illegible]	東亞	[illegible]
白井	[illegible]	亞細亞	[illegible]
大原	[illegible]	第一	[illegible]
德泰	[illegible]	明治	[illegible]
山口	[illegible]	丸玉	[illegible]
立山	[illegible]	丸星	[illegible]
京證	[illegible]	新田	[illegible]
成淸	[illegible]	內海	[illegible]
杉山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古望	[illegible]	山本	[illegible]

大阪短期日産高低

年 月	最高	最低
昭和十一年	[illegible]	[illegible]

兩會社株式增資

▲浦賀船渠一割三倍增資=【東京電話商通】浦賀船渠(資本金七百萬圓)은 今回海軍當局의 諒解를得하야 四百萬圓을增資하야 一千百萬圓으로 하기로決定하고 舊株一株에對하야 新株二株를配定키로되엇다

▲日本電工增資=【東京電話商通】日本電工은 아루미增産과化學工業擴張及 借入金返濟에 充當키爲하야 今月中旬重役會를開하고 未拂込金一株에廿圓을十月一日까지에 徵收하고 更히資本金二千五百萬圓을倍額인 五千萬圓으로 增資키로決定하얏다

實物前場取引

▲日滿아루미 五三、〇〇 ▲浦賀船渠 [illegible] ▲浦賀船渠新 [illegible] ▲帝麻 [illegible] ▲日滿亞麻 [illegible] ▲日本航空 [illegible] (取引高 [illegible]枚)

東京國債市況

【東京電話同盟】國債市場은 具體化待望로 至極閑散이며 五分利債는 保合、四分、三分半은 低調이오 米貨는 不味繼續하야 六分半、五分半共히 二十錢下押이엇다

大阪國債市場

▲甲五分利 一〇一、四五▲第二回四分利 一〇一、四五 ▲甲五分利 [illegible] ▲第二回四分 一〇二、五五 ▲佛貨四分 [illegible] ▲米貨六分半 [illegible]

市場六感

㊑……國策一新閣議는 逐開幕되어 무엇이 나올고? 具體案은 十日閣議로 밀모양이라나 ▲國策과 增稅方面을 몰라 東新은 依然低迷▲日前反撥되어도 다시 賣叩되리라고 占처는 東新의 신세야말로 可憐▲取引所株는 時勢에 鑑하야 人氣離散當然視로 總悲觀▲이왕이면 總賣込이잇서야만 轉換될것이나?

㊍……挽近阪硬仁軟의 市勢는 今朝부터俄然一變하야 阪地가돌이혀 瓦落을告하고 當地는比較的下淺▲그러나阪地低落에當地의 單獨高를示하지못할것은 삼의大體事情이 逆順되지는도할것이다▲그理由는朝鮮內의 在米事情은 日本內地보다 稍신滴澤하다고 볼수잇슴즉 잘어리阪仁의傾向가當然▲그런데 一昨夜來의降雨가 [illegible] 로지못하야 中部朝鮮은아즉도 [illegible] 此地方의事情 [illegible] 安心할수업는狀態

生絲市勢

岐路에直面

海外에 先約不振과 노르갑에는 實彈이 모허드는狀態로 待機하는等의 事情을 생각하면 賣價底에 혈하지 안혈든 가 하는만을 장게한다。◇ 期待되는것은 海外의實買가 빨리 進展하야 輸出商이 現物主에게 損을 보고 處分할가 或은 製絲家가 保險實물 買繫하는材料로 될가 하는 두길이 잇다 그러나 아직 製絲家가 賣繫하는 傾向이 안보히면 도리혀 弱氣的策動이잇다 一面海外도 이近處에서 一氣로 買出動할것가티 생각이 안는다。◇ 어떠튼지 製絲家가四十一、二掛의 原料를 사드릴수잇는데까지 하라고 할것이다 그렇지마果然 絲價가 어듸로 갈가 함에잇서 目下重大한 岐路에處하여잇다고……。

重要商品界事情

期米 天候順調 暴落

前場瓦落

昨後場阪地三十一圓四、五錢에 共히 三十一圓八十三錢에 陰止한 當市場은 今朝에入하야 阪地初付三十二圓九十三錢인 入丁反落을 擴하고도 三十一圓八十五錢인 反히二丁高로 寄附한後 阪地九十錢에出寄에서 揉合하다가 八十四錢에止할한 伴하야 俄然 賣物의續出로 當中六十錢 先限六十三錢으로 反落止場하엿다

後場暴落

後場은 大阪一、六錢高로 始場後 利喰이나와 四十五錢에 始場後 十八丁低로 三十一圓四十三丁暴落寄로 賣物이殺到하야 六錢間揉合하다가四十四錢에止場하다

凶作市勢出盡!

天井觀도不無

本年의米價는 年來繼續의凶作後인만치 農繁期에 入하기前부터 堂島市勢 四十圓說을 主張하는 强派가 非一非再이엇섯다 그러나 昨今의市勢는 去月中의 阪地三十四圓五十九錢 當地三十二圓七十錢을 最高價로하고 因而半個月以上이나 高位置의保合으로終始함을보면 天井銀鍊의觀이 업지아니하다 實로當地米勢의過去經路를보면 本年의二、二六事件이突發한後 三月三日三十八圓七十八錢의 低價를 出發하야 六月十五日三十二圓七十錢의 最高價를 示하기까지의前日數八十六日과 値幅三百九十二丁의 續騰을 示하엿다 實로 그동안의 材料를綜合하여보면 日本內地地方의 低溫으로苗板의 發育不良又는 移秧의遲延과 四月初旬의 政府米五十三萬石買上及六月中의 空梅雨와 朝鮮의 旱魃等强材가 旣히織込되엇다 그러면 日本內地의 空梅雨가 朝鮮의旱魃이 解消되고 따라서買方의 嫌忌가 업지아니하든 政府米의 入札拂下도 實行하지안키로 되엇슨즉 이로부터 特殊한强材가 突發하거外에는 本年의 大月天井이 되지안흘가한다

移秧은尙未了

雨量不足으로

朝鮮의植付狀況은 總督府農林局發表에依하면 六月三十日現在의 移秧이 六割七分六厘로 昨年同期에比하야 二割三分의 減少인데 本月一日부터 二日까지에亘한降雨量이 南鮮地方에는 潤足을與할모양이나 中部地方은도한不足한모양임으로 南朝鮮 北朝鮮의移秧은 거의完了될것도가트나 中部만은아즉도 完了되지못할것가다 그럼으로 今朝阪地當地는 雨量不足을 强材視하야 三十四圓前後의 低報를傳함에도 昨止値보다의 二丁反高로寄附하엿다 그러나 挽近朝鮮은 雨期에入하얏스나 降雨가 업지아니하야 國境內陸의低氣壓이停滯되어 北朝鮮은 大體曇天으로 或處에依하야는驟雨가잇슬모양이며 그外南中國의低氣壓이發生되어잇슴으로 느저도 明朝는南朝鮮에 降雨가잇슬것이라한다 그러면中部만의 晴天을 强材視하야 買安心한은一朝의憂가되지안흘가한다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買方 當限 中限 先限 [illegible]

堂島期米崩落

【大阪電話】昨日高價示現後一息商狀을呈한 機先今朝는 各地天候의 恢復과 氣溫上昇으로 賣人氣旺盛化하야 漸次下押氣味이엇다 更後場은 地場軟派聯合側의 賣物이 出現하야 一擧로三十丁의 崩落을 呈한바 今後의 天候如何로 弛緩은 難免될 模樣이라한다

▲今前場主要賣買는 賣方、馬藏、地場軟派、東京側、買方、田中眞、地方側

各地正米

京城不變

繼續하야形勢傍觀이오 極히活氣薄의 場面이엇다 丸仁三等三十一圓六十錢 四等四十一圓三十錢 一等白米三十三圓五十錢

仁川保合

依然 積極的의 買氣가업는 一方 賣方도 一向 買急하는 模樣이 업고 市況이 極히 不氣乘閑散을 繼續한 丸仁三等三十一圓六十錢 四等三十一圓三十錢 一等白米十三圓四十錢

釜山保合

新規賣物待로總傍觀人氣이오 繼續하야 市況不立이오 當用小口買觀가 散見되는 程度로 粥保合인 角ᄀ三等三十一圓五十錢 四等三十一圓二十錢 一等白米十三圓三十八錢

大邱强堅

定期는 引緩步調이나 當用側의 好價買進으로 前日보다 二十錢의 反撥을 告한 角ᄀ三等三十一圓七十錢 四等三十一圓五十錢 一等白米十三圓〇五錢

群山軟調

期米依然하야 軟調로 賣方의 程度를 緩和치 안으나 實行不捌과 期米軟調로 低調인 角ᄀ三等三十一圓八十錢

木浦焦付

産地는 農繁期로 賣物全無인 一方 日本內地의 沈默으로 買氣가 去益萎縮되어 賣買皆無와 가튼 閑散場面이오 丸木三等三十一圓八十錢 四等三十一圓五十錢 一等白米十三圓丁

仁川 米期 福 吉村取引店

米 株 仁川 東益商店 光皿 京城 金益證券株式會社

米期 東 趙俊鎬取引店 仁川海岸町三丁目

金融(三日)

◆海外經濟◆ ◆朝鮮銀行券◆ ◆日本銀行券◆ ◆東京金利◆ ◆大阪金利◆ ◆京城手形交換高◆ ◆對外爲替◆ ◆金買入價◆ ◆東京市中金銀價◆ ◆京城市中金銀價◆ ◆京城正米◆ [illegible]

商品(三日)

◆京城雜穀◆ ◆仁川正米大豆◆ ◆京城綿絲布市勢◆ ◆京城絹布◆ ◆鐵油冷價◆ ◆鐵搾粕冷價◆ ◆日本麥粉市勢◆ ◆滿洲商況◆ ◆大連特産市勢◆ [illegible]

◆大阪綿絲◆ ◆大阪棉花◆ ◆各地人絹◆ ◆大阪人絹現物◆ ◆橫濱生糸◆ ◆大阪砂糖◆ ◆海外砂糖◆ ◆치카고期米◆ ◆各地正租市勢◆(單位錢) [illegible]

株式(三日)

◆朝取短期◆ ◆實定代引日步◆ ◆朝取短期實買高◆ ◆東京現株◆ ◆東京短期◆ ◆東京短期取組◆ ◆大阪短期◆ ◆大阪短期取組◆ ◆大阪長期◆ [illegible]

期米(三日)

◆朝取期米◆ ◆朝取期米賣買高◆ ◆大邱期米◆ ◆釜山期米◆ ◆群山期米◆ ◆木浦期米◆ ◆大阪期米◆ ◆東京期米◆ ◆日本各地期米◆ ◆大阪正米標準價◆ ◆大阪期米取組◆ ◆大阪市中在米高◆ [illegible]